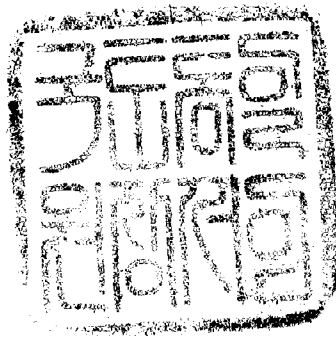


- I. 이 冊子는 國上統一院의 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 2件을 合本한 것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 問題에 關聯된 研究 및 政策樹立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對話時代의 宗教界 統一運動 方向

1989. 1



刊行責任：洪 良 浩
(調査研究室 書記官)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南北對話時代の
基督教界 統一運動 方向

研究責任：柳 恩 相

(서울女大, 政治學)

目 次

1. 序 論	5
2. 基督教와 社會主義	8
3. 韓國基督教와 北韓共產主義	14
가. 北韓共產主義의 基督教 理解	14
나. 共產主義에 대한 韓國基督教의 對應	20
4. 北韓과 南韓基督教와의 만남	23
가. 南韓教會의 北에 대한 關心	23
나. 北韓教會의 南韓教會와의 接觸意志	28
다. 카톨릭教會와 北韓當局의 만남	32
라. 改新教와 北韓當局의 만남	36
1) ‘디아스포라’를 통한 接觸	36
2) KNCC와 朝鮮基督教徒聯盟	40
5. 基督教의 統一論議들	51
가. 카톨릭教會의 統一論議	51
나. 改新教의 統一論議	57
1) 1970년 이전	57
2) 1970년대	62
3) KNCC의 2.29宣言을 前後한 統一論議	67
6. 改新教 統一論議의 神學的 背景	76
7. 結 論 : 基督教 統一運動 方向	80

가. 展 望	80
나. 몇가지 제안들	82

1. 序 論

北韓의 基督敎會에 대한 態度는 變化하고 있다. 그 變化의 本질이 어떠한 것이며 그 變化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必要하겠지만 變化하고 있음은 確實하다. 북한 的 基督敎 理解는 마르크스주의의 反基督敎的 宗教理解에 그 기초를 두었을 뿐 아니라 1945年 해방이후 北韓의 共產政權이 樹立된 이래로 취해온 基督敎人 박해정책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그들은 늘 基督敎와 미신을 結付시켰고 基督敎와 美帝國主義를 結付시켜서 反社會主義的이고 反民族主義的인 것의 표상으로 몰아서 박해를 서슴치 않았다.

이러하던 北韓當局이 近年에 이르러서 北韓出身 在美基督敎人들을 가족상봉 或은 學術會議를 구실삼아 北韓에 招請하기 시작하였다. 北韓을 訪問하는 外國人들의 觀光코스인 보통강호텔, 묘향산호텔, 묘향산 국제친선전시관, 만경대, 옥류관, 평양의 지하철, 金日成廣場의 주체담 등과 더불어 北韓을 訪問하는 基督敎人들에게 日曜日이면 家庭에서 드리는 예배에 參與케 하는 새로운 觀光코스를 개설했는가 하면 지난 11月初에는 평양에 개신교 교회당과 카톨릭성당이 建築되어 봉헌되어졌다는 소식이다.

몇년전부터 WCC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하여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조심스럽게 북한의 기독교도들과의 接觸을 시도해 왔었는데, 지난 2월 29일 KNCC는 “민족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敎敎會 宣言”을 發表하였다. 이 발표가 있는 후 基督敎의 거의 모든 교단들은 이것에 대한 贊反의 討論을 展開하였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研究委員會를 두어 이에 대한, 그리고 韓國民族統一問題와 북한선교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연구케 하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宣言에 대하여 違反으로 나뉘어서 격렬한 論爭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韓國教會協議會가 둘로 나뉘어지는 듯한 인상마저 느끼게 한다.

지난 11월 23~25일 스위스 클리온에서의 KNCC대표들과 북한기독교도 연맹대표들의 회동과 선언은 한동안 파문을 일으킨 것으로 豫想된다.

개신교와 카톨릭에 속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에 接近하는 것으로 評價되는 오늘, 특히 國家의 모든 政策이 國民的 支持의 기반위에서 立案이 되고 실현되어야만 그 實効를 거둘 수 있는 民主體制의 韓國政府當局에게는, 이 문제는 단순한 基督教會 內的問題의 次元을 넘어서서 統一 政策立案과 그 實現에서 반드시 考慮해야만 될 國家的 事項이 되고 있음을 否定할 수가 없다.

對話를 통한 南北問題의 解決을 基本原則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만아니라 經濟的 交易의 擴大를 비롯하여 여러 영역에서의 交流를 포망하는 政府當局의 基本立場과 北韓側의 基督教에 대한 態도의 變化, 그리고 KNCC를 중심한 일부 基督教界의 북한교회당국과의 接觸試圖를 위한 努力과 KNCC에 加入하지 아니한 여러교단들의 北韓에 대한 선교적 관심, 그리고 政府當局의 南北對話와 交流의 擴大를 위한 諸般 政策的 措置들을 勘案하면, 앞으로 南北教會關係는 擴大될 것이며 教會內에서의 民族統一의 論議는 高潮될 것으로 展望할 수 있겠다.

앞으로 南北의 여러分野의 接觸이 시도될 것으로 意料되는데, 이미 接觸된 基督教會의 南北接觸 및 基督教內의 統一에 관한 基本立場들과, 이에 기초한 統一運動에 대한 明確한 理解와, 이로 인하여 發生하게 될 여러가지 效果에 대한 연구는 매우 緊要하다고 하겠다.

본 研究는 基督教의 民族統一에 관한 基本立場의 역사적 전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神學的 論議들 그리고 教會的 統一運動의 現況과 豫想되는 문제점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基督教的 統一運動方向을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研究를 위하여 基督教新聞들 그리고 이에 관한 글들이 실린 학술지 등의 寄稿와 이 제목에 관련된 討論會 등의 발표문을 주된 分析資料로 삼았다.

2. 基督教과 社會主義

社會主義와 基督教의 相互理解의 문제는 共產主義 北韓을 相對하여 展開된 韓國基督教의 統一運動을 이해하는데 必須的인 것이다. 또한 實際로 北韓 共產主義政權의 反宗教的 宣傳論理의 基本은 구라파의 社會主義와 基督教의 관계속에서 노정된 몇가지의 基本的 論理와 一致하고 있음을 본다.

社會主義의 基督教에 대한 基本的 이해를 大略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마르크스의 宗教理解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즉 宗教는 社會的 產物이요 階級對立이라는 下部構造에 대한 上部構造로 이해되기 때문에 資本主義가 끝이 날때는 宗教도 消滅된다고 주장하며 宗教는 자기를 상실한 人間에게 환상적인 행복을 주는 아편이기 때문에 人間的 社會가 되면 어떤 宗教도 必要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적 명제는 베벨(August Bebel) 등에 이어지는데 베벨은 그의 “ 基督教과 社會主義 ”라는 작은 저술속에서 社會主義的 宗教觀을 더 明確히 서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本質的으로 人間들이 만든 作品이라고 말한다. 自然과 世界의 現象들을 다 理解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든 說明할 수 없는 것들을 超自然的 存在에 돌리려고 하는 것이며 物質的인 근공 때문에 또 階級的인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위하여 초자연적 해결의 必要를 增大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종교란 역사의 시작 그 당초부터 人의 抑壓을 위한 도구였으며 근대 자연과학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면 갈수록, 세계의 탈신비화가 진행되어가면

갈수록 宗教는 그 실 터를 잃어간다는 것이다.

베벨은 以外에도 基督論에 대한 異意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基督敎的 理解 즉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의 모습에 대한 基督敎的 高 價는 1세기 이후 初期 基督敎의 教會會議에서 조작한 것으로 매우 애매한 것이며 그외에 대부분의 基督敎的 傳統도 古代 異敎的 環境으로 부터 유래한 것이며, 또한 기독교적 교리와 사상들도 역시 異敎的 哲學들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기독교는 다른 宗教들과 마찬가지로 각 文化的 段階들에 相應하는 人間的인 產物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아니라 문화사적 산물로서 고대문화의 오래된 기원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풀리지 않는 모순들이 있어서 한 마디로 그의 터는 결코 堅固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바이트링(Wilhelm Weitling)이나 라살(Lassalle)과의 基督敎에 대한 이해이다.

바이트링(1808-1871)은 공산당의 전신인 정의자 동맹때부터 社會主義的 모임에 헌신적으로 參與한 사람이었는데, 1844년 “가난한 죄인의 복음”(Evangelium eines armen Sünders)이라는 저서를 내어 그의 社會主義思想을 스위스, 영국, 벨지움 등으로 다니며 勞動者들의 선동가로 힘써 전파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社會主義的인 視角에서 이해하였다. 즉 예수는 私有財産의 상속, 돈과 處罰의 廢止를 가르쳤고 그의 삶의 原理란 自由와 平等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家族制度를 否定하였고 社會的 戰爭을 설교하였으며 個人財産에 대하여 전혀 尊重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바이트링의 예수에 대한 이해, 초기 원시기독교 이해는 社會主義的 革命家와 그를 추종하는 社會主義的 理想을 가진 무리들이

라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논리를 전개한 것이 라살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의 대중선동과정에서 나타났던 基督教에 대한 급박은 매우 興味롭다. 이들은 라살주의적 社會主義를 歷史的으로 基督教의 正當한 後繼者임을 強調하였다. 그리스도를 最初의 社會主義者요 共產主義者로 묘사하고 1870年代 初半의 新聞에서 선동을 위해 論說을 贈거쓰는 題材가 바로 “예수의 라살” 이었다.

세째로 요셉 디츠겐 (Joseph Dietzgen)은 哲學的인 接近方法으로 基督教을 공격하였다.¹⁾ 그는 위의 그리스도를 최초의 社會主義者로 主張하는 당시 일부 社會主義者들의 主張을 反對하고 나섰다. 基督教과 社會主義는 전혀 다른 基本性格을 지닌다고 主張한다. 基督教은 自己의 拋棄 그리고 하나님의 信賴가 그 特徵인데 社會主義는 物質的 欲求의 充足, 人間勞動의 意圖的 組織化를 통하여 지상에서 人間다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人間 자신에 대한 信賴가 그 本質임을 強調하였다. 의식적이며 計劃的인 社會的 勞動의 組織은 世界的 절대적 組織者로 理解하는 것을 前提하고 있다. 宗教的 人間은 세상의 問題를 解決하는데 不適合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환상적인 것 뿐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일들을 說明하는데서 宗教的 體系를 除去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宗教的 體系 代身에 合理的인 體系로 代替시켜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社會主義 本質의 하나인 것이다. 社會主義者는 세상의 지혜 즉 구체적 經驗으로부터 얻어지는 사실적인 관계 속에 그 根據를 두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定立해 간다. 正義나 自由나

註1) W. Ilyenstein, Die religiöse Gedankenwelt der Sozialdemokratie, Berlin 1914, ss. 16ff.

하는 모든 概念들은 실제적이고 肉體的인 프로레타리아트의 要求로 부터, 人民大衆의 要求로 부터 얻어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핀 19세기 社會主義者들의 基督敎的인 理解는 한마디로 反基督敎的인 것이었다. 첫번째의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거니와 두번째의 바이 트링이나 라살주의자들의 이야기도 基督敎信仰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基督敎的 內容과는 그 거리가 엄청나게 먼 것이었다.

基督敎는 이러한 反基督敎的 社會主義의 세계관 앞에서 反社會主義的 立場을 分明히 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基督敎가 社會主義의 타도목표가 되는 市民社會와 資本主義的 經濟 社會制度를 斗護한 것이 아니었음은 分明하다. 反社會主義·反自由主義가 基督敎思想家들의 精神運動의 實踐的 目標가 되었다.²⁾ 19세기 革命思想의 根幹을 이루었던 이 自由主義와 社會主義의 基本的 立場과 基督敎는 根本的으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人間理性에 대한 信賴에 기반을 둔 이들에 비하여 인간의 罪性으로 인한 불가피한 絕望感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強調는 接近하기 힘든 거리감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手工業者들의 問題, 勞動의 問題 등 당시의 가장 深刻한 社會問題들에 대하여 社會主義者들 못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진력했지만 이들은 社會的으로 비참한 問題의 해결을 통하여 反基督敎的 社會主義를 막아내려는 具體的 目標를 가지고 있었다. 19세기의 基督敎社會運動家들인 후버(V. A. Huber), 바게너

註 2) 유은상, 19세기 독일 카톨릭 사회운동연구, 서울여대논문집, 1985

19세기 독일 개신교 사회운동연구, 서울여대논문집, 1985

(Hermann Wagener), 스토커(Adolf Stoecker) 등도 이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³⁾ 물론 토트(Rudolf Todt)나, 블룸하르트(Christoph Blumhardt) 등과 같이 社會主義者들과 對話를 시도하거나 사회민주당에 입당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으나⁴⁾ 이들은 모두 無神論的 社會주의 세계상이나 인간이해에 동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블룸하르트는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여 당시의 교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의 思想的 後繼者인 바르트(K. Barth)의 評대로 “사회민주당앞을 지나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評이 그의 운동의 성격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카톨릭교회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취했던 기본입장도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주의적인 것이었다. 사회주의가 資本階級과 勞動者階級間에 鬭爭하는 무기체적 社會상을 提示하는데 반하여 카톨릭교회는 유기체적 社會상을 提示함으로써 社會의 여러 불평등한 要因들의 유기체적 통일의 必要性을 말한다. 바이더(Baader), 뮐러(Adam Müller), 부스(Buß) 라이켄스페르거(Reichensperger) 등 수많은 카톨릭 사회사상가들은 社會主義者들이 革命을 통하여 社會問題解決을 시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社會問題의 基督敎的 解決을 통하여 革命을 막아내려 하였다.⁵⁾ 주교 케텔러(Ketteler)나 칼핑(Kolping)의 반사회주의적 立場은 항상 明白하였다. 특히 케텔

註 3) Schnabel, F: Deutsche geschichte im 19, gahrhundert, Bd. 4. dtv, 1987 SS. 455ff, 565ff.

4) Brakelmann, G: Kirche und Sozialismus im 19. Jahrhundert, Luther Verlag 1966, SS. 285.

5) Schnabel, F: 같은책, SS. 202 f.

러는 “自由主義, 社會主義 그리고 基督教”라는 저서에서 그의 반사회주의적 立場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카톨릭 勞動組合運動은 社會主義的 勞組에 대하여 강하게 맞서는 運動이었음은 周知의 사실이었다.

더 나아가서 19세기, 20세기에 걸친 모든 교황들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 대하여 반대하는 立場들을 견지하였다.

교황 비오 9세의 “Enzyklik Quanta Cura” 나 19세기 말의 Leo XIII의 “Rerum Norarum” 등은 카톨릭의 社會主義에 대한 分명한 立場을 밝힌 基本文書였다. 1930年代의 비오 11세의 “Divini Redemptoris” 그리고 그를 계승한 비오 12세의 基督教의 敵으로서의 共產主義를 宣言한 것은 아주 두드러진 예에 속한다.⁶⁾

註6) 김몽은, 카톨릭의 대공산주의정책, 基督教思想, 1972년 11월호, SS. 35-41.

3. 韓國基督教와 北韓共產主義

가. 北韓共產主義의 基督教 理解

北韓의 基本的인 基督教理解는 바로 이러한 구라파의 社會主義的 基督教理解에 根據하고 있다. 그들의 大衆政治用語辭典과 哲學辭典 등에 나타난 것들을 要約하여 보면 宗教란 “사람을 支配하는 自然 및 社會의 힘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환상적으로 반영된 의식형태, 그 힘을 신으로 알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 “미신과 本質적으로 同一한 것”, “歷史적으로 착취계급들은 항상 종교를 자기들의 思想的 道具로 利用하여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階級意識과 鬭爭意識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定義한다. 또한 宗教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을 낳는 社會的 階級的 根源을 없애야 한다. 社會主義革命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한 사람의 착취와 抑壓을 청산하는 것은 宗教的 편견을 없애는 결정적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基督教理解는 위에 논한 마르크스와 베벨의 立場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국의 基督教를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로 몰아부침으로써 基督教에 대한 極端的인 反對의 立場을 견지하였다.

基督教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숭배하는 宗教로써 인민군으로 大衆을 侵略하고 약탈하기 위한 미제의 思想的 道具”, “資本家들의 搾取를 정당화하며 勞動階級の 階級意識을 마비 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搾取와 抑壓, 侵略과 戰爭을 正當化하며 식민지 약탈의 竊案內者”, “18세기 後半부터 미국놈들과 구라파 식민주의자들이 侵略의 兇잡이로 派遣한 선교사들에 의하여 基督教,, 주로 新教가 퍼졌으며”, “宗教的 무지함주의.

숭미사상을 불어 넣었고”, “南朝鮮에서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政策을 변호하는데 積極 服務” 운운하면서 정죄하고 있다.

北韓共産政權은 그들의 이러한 反基督敎的인 基本的 理解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基督敎를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道具的 集團으로 轉換하려고 努力 하였다.

北韓共産政權의 樹立過程에서 이에 獻身的으로 參與하였던 강양욱을 위시한 基督敎聯盟을 주도했던 소위 宗教人이라는 親共系 人士들은 그 강령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基督敎의 博愛的 原則에 基礎하여 人民의 애국열을 환기하며 조선의 完全獨立을 위하여 建國事業에 일치 協力할 것

2) 民主朝鮮 建國에 해독인 罪惡과 항쟁하고 도의건설을 위하여 분투할 것.

3) 言論·出版·集會·結社 및 宣敎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하여 진력할 것.

4) 基督敎의 發展을 위하여 매진할 것.

여기에 나타난 바대로 基督敎聯盟의 가장 큰 目的은 “建國事業을 위한 協力”, “建國에 해독인 罪惡과 抗쟁” 등, 共産政權을 위해서 奉仕한다는 政治的인데 있었다. 당시 이북의 基督敎者들의 회술에 의하면 강양욱 등 基督敎聯盟側 목사들이 다니면서 선전한 주된 內容은 19세기 獨逸의 社會主義者 바이트링이나 라살의 추종자들의 선동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고백보다는 社會主義 革命家의 원형으로서의 예수 혹은 社會主義革命의 지지자로서의 敎회를 역설하였다.

위에서 言及한 바 대로 北韓共産政權의 반기독교적 종교이해가 기독교박

해정신으로 具現되어졌을 때 이는 더 한층 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왜 정의 혹심한 基督教탄압을 진디어 온 北韓의 基督教인들이 無信論의인 共產政權의 등장을 환영하였을리가 없었음도 자명한 일이었다. 해방 후 일제탄압으로부터의 教會再建運動은 물론이요 建國準備委員會・其他 정당단체에 參與했던 基督教人들을 무차별 탄압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基督教徒聯盟이란 組織이 結成된 것은 바로 宗教的 탄압과 병행된 일이었다. 또한 6.25 를 전후하여 조만식선생을 중심한 소위 “민동적 장로목사”들이 처형되었다. 김양선이 쓴 “韓國基督教 解放 10年史”에 의하면 6.25 韓國戰爭을 前後하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 개신교의 성직자들이 400여명 학살되었고 교회의 피해는 1,400여 곳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南侵時에도 212 名의 성직자들을 학살하였고 100여명을 拉北하였다.

北韓當局의 카톨릭教會에 대한 박해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韓國人 52명, 美國인 4명, 불란서인 15명, 獨逸人 66명, 오지리인 1명, 벨기에인 5명, 네델란드인 6명, 호주인 1명등 모두 150여명의 성직자들이 학살되었다.

해방이 될 당시 北韓에는 3개교구에 약 5만명의 카톨릭 신자가 있었으며 신학교, 수도원, 병원등을 運營하고 있었는데 北韓共產當局이 터원 수도원의 포도주공장의 運營을 탈세라하여, 인쇄소는 불온물 印刷란 罪目으로 그 責任者들을 逮捕하고 그 시설들을 沒水한 것처럼, 宗教的인 罪目이 아닌 다른 政治的인 罪目を 씌워 逮捕하고 투옥하였다.¹⁾ 이리하여 사실상 천

註 1) 변진홍, 소비에트시기의 북한공산정권과 교회, 민족통일의 진로와 한국 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편지, 1988, SS.44ff.

주교의 성직자들은 活動을 전혀할 수 없게 되었다. 카톨릭교회사 가운데 “평양교구사”에서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술하고 있다.

“북한공산주의자들도 유물사관에 立脚한 政治路線에 상반된 유신론 배제에 급급하여 宗教를 아편이라 불렀고, 학교교육내용을 철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根據하여 우리민족의 固有한 전통문화와 역사를 마구 흔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진화론을 앞세운 묵은 科學理論으로 학생들 사고에 혼돈을 초래케 하였다. 뿐만아니라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소녀단·민청파위의 무서운 세포조직을 통하여 학우들의 반동여부, 신자학생들의 교회 활동을 탐지 보고토록 하며 일요일은 영화감상회·야영대회·운동회 등을 구실로 주일미사 참여를 방해하였다. 이와같이 宗教活動을 감시 방해하는 것도 시원치 않았던 그들은 教會學校를 몰수 또는 폐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다음표에 나타난 바와 같았던 北韓의 가톨릭教會가 하나의 교회당도 없이 흩어진 700의 敎人으로 위축되었다.”

박해이전의 北韓教會 狀況 (1944 년도)

교구	교우수	주교	사 제 수			사 수 녀			신학생
			방인	외국인	방인	외국인	방인	외국인	
덕원	5,370	1	2	20	12	25	23	13	22
함흥	5,474	--	5	11	--	1	13	6	--
평양	28,400	1	14	--	--	--	31	--	19
연길	17,764	1	5	23	1	17	19	18	15
계	57,008	3	26	54	13	43	86	37	56

출처 : 한국천주교회 북한선교부

북한선교(팜플렛) 제 8 호, 1985. 8.15. p. 6.

基督敎와 北韓共產主義 혹은 北韓의 敎會들과 만남에 있어서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예상되는 장벽은 소위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우상화 문제이다. 1955년말 후르시초프의, 스탈린주의의 청산과 평화공존적 주장앞에서 김일성이 취한 독립적 조선의 천명을 위하여 행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버리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언설이래로 꾸준히 하나의 사상의 체계로 조직화시켜 나온 일명 김일성주의라고도 불리우는 소위 주체사상은 이제 이북전역 국민들에게 획일적으로 強要되고 있는 政治的 이데오르키이다.

인간 혹은 인민대중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로 특징지워지는 이 사상을 요약하면

첫째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회·역사 영역에 구현하여 근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歷史가 진진한다는 사회·역사원리와 메케나라, 메케민족 운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 자신이라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人民大衆에게 있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세째로 주체의 영도 방법은 모든 것을 人民大衆의 힘에 의거하고, 人民大衆의 창조적 힘을 발동하여 해결해 나갈때에 대한 要求를 제기함으로써 세계와 역사의 주체로 자각된 사람들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이 주체사상을 각 분야에 적용하여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그리고 “國防에서의 自衛”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북한의 주체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은 김정일이 작성한 유일사상체계확립 (1974) 10대 원칙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그 내용은

- 1) 김일성의 革命思想으로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할 것.
- 2) 김일성을 높히 받들 것.
- 3)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 할 것.
- 4)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 할 것.
- 5) 김일성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할 것.
- 6)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思想의지적 統一과 革命的 단결을 強化할 것.
- 7) 김일성을 따라 배워 共產主義 풍모와 革命的 사업방법, 人民的 사업작풍을 소유할 것.
- 8) 김일성이 안겨 준 政治生命을 귀중히 간직, 그에게 충성으로 보답할 것.
- 9) 김일성의 유일지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조직규율을 세울 것.
- 10) 김일성이 개척한 革命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해 나갈 것.

김일성에 대한 지나친 強調가 北韓전역에 미쳐서 北韓의 김일성과 관련된 지역은 성역화시키고 그와 관련된 일화들을 신화와 같이 만들어 가르치고 그의 발길이 닿았던 곳마다 동상이 세워지고 일반가정집의 생일잔치에서 어머니의 노래로 강반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이런 일련의 김일성 우상화가 만연되어 있다.²⁾

註 2)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 분단을 뛰어넘어, 풍원문화 1988, S. 162.

나. 共產主義에 대한 韓國基督敎의 對應

위에 論한 北韓의 政治・社會的인 이론이나 관행들은 기독교적인 기본교
백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점들이다. 주체사상이 말하는 인간중심의 사고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기독교적 敎理
나 고백에 정면으로 충돌될 것이며 김일성의 신격화는 피조물의 하나님행
세를 가장 근본적인 罪惡으로 여기는 基督敎會에게는 더없는 역겨움이 될
것이다.

황제숭배사상이 만연해 있던 고대로마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우리주 예
수 그리스도”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그들의 주가 로마의 황제가 아님
을 명확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基督敎에 대한 박해를 자초하였다는 敎회
사적 전통은 김일성 우상화가 극에 달해있는 北韓共產政權과 基督敎와의
갈등을 쉽게 명백하게 예감하게 한다.

카톨릭敎會의 共產主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단호하였다. 순교적 자세로
共產主義에 결연히 맞서갔다.

北韓에 基督敎徒聯盟이 만들어졌을때 카톨릭敎會는 이에 대하여 매우 단
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주교나 사제들은 물론 敎회신도들도 聯盟에 간여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基督敎徒聯盟 참여를 강양육으로부터 권고 받은
바 있었던 평양교구의 홍용호 주교는 물론이요 포섭대상자로 여겨졌던 김철
규 신부등은 共產主義者들의 어떠한 회유나 협박에도 굴함이 없이 基督敎
徒聯盟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러한 당시 카톨릭敎회의 立場에 대한 오
늘의 평가는 매우 흥미롭다.

“첫째는 敎會의 이처럼 단호한 대처는 聯盟組織을 통한 敎회분열을 봉

쇄할 수 있었으며 신앙인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천주교회가 基督教聯盟에 관여치 않음으로써 비록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北韓내에서의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3) 는 점이다.

北韓共產政權은 1949년 5월 덕원수도원 몰수, 교회부설학교들의 몰수 등 노골적인 탄압을 주저치 아니하였다.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개신교적 대응도 역시 매우 단호한 것이었다. 당시의 北韓의 개신교인의 수가 35만에 이르렀고 곳곳에 있는 교회당들과 학교, 병원 등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北韓의 민족적지도자들은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이승훈 등 대부분 개신교도 출신들이었다. 北韓의 개신교는 당시의 北韓共產主義者들이 평화적 방법으로는 복속시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共產主義者들의 조직보다 훨씬 방대하고 또한 국민적 신망이 높았다. 북의 개신교도들은 해방후 새로운 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基督教社會민주당, 基督教 자유당을 창당하였고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는 등 적극적인이어서 共產主義者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신의주 학생반공의거사건, 11.3일 주일날의 선거를 거부하고 불참하였고 3.1절 기념예배의 강행등 공산당과 基督教徒들과의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위에서 논급한 基督教人 순교자의 수는 基督教가 共產主義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히 대처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基督教人들에게 共產主義란 단순한 대적자가 아니라 사탄적 존재였다. 北韓에서 基督教人들

註 3) 변진홍, 같은 논문 S. 62.

을 회유하고 그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든 조선기독교도연맹은 基督敎人들에게 共產主義를 위한 하부조직, 基督敎탄압과 외해를 위한 도구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北韓에는 바로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단 한곳의 교회당도 없을 정도였고, 북한당국의 발표를 숫자 그대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北韓전역에 흩어진 개신교신자의 수가 1만명밖에 아니 된다는 점은 基督敎와 北韓共產主義와의 관계를 명확히 말하여 준다.

남한의 개신교가 北韓共產政權에 대하여 가졌던 태도는 한마디로 반공이었고, 반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政權들에 대하여 암묵적 지지를 보내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4. 北韓과 南韓基督敎와의 만남

가. 南韓敎會의 北에 대한 關心

南韓敎會의 北韓에 대한 關心은 한마디로 지대하다.

첫째, 北韓敎會의 실태에 대하여 그것이 지하교회이건 조선기독교도연맹소속이건간에 지대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한국개신교 교세가 北韓지역 특히 평남북지역에서 매우 열렬하였으므로 평양, 선천지역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基督敎敎會 뿐 아니라 수많은 基督敎學校, 병원 등 基督敎機關이 北韓地域에 산재해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민족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들, 조만식, 이승훈, 길선주 등이 이 지역에서 배출되었다. 특히 한국개신교의 대표적 교단이 되는 장로교는 그 성직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를 평양에 두고 있었다. 해방이후 반기독교적 共產政權이 서고 6.25사변을 거치는 동안 北韓敎會의 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많은 신도들이 월남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南韓基督敎의 성장에서 월남한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엄청나게 컸다. 서울에서 개신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들인 영락교회나 충현교회를 위시하여 많은 교회가 北韓出身 基督敎敎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다. 교향을 등진 이들 실향민 크리스찬들의 교향에 대한 關心은 한두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크다.

둘째로 基督敎會의 가장 큰 사명가운데 하나가 北韓宣敎이다. 南韓敎會의 선교적 열정은 대단한 것이어서 국내외 각 분야에 선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군대, 경찰, 병원, 교도소, 공장근로자, 유락여성, 한국에 정박중인 외향선원, 대학, 맹인들, 체육인들, 연예인들, 그리고, 국외선교로 불교국가인 동남아의 타이, 버마, 방글라데쉬,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아르헨틴, 브라질 등 그리고 케냐를 중심한 아프리카의 몇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있어서 이들의 선교일은 대단한 것이다. 1988년 7월 '88 한인선교대회 (Korean World Mission '88) 준비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韓國 개신교 전체가 56개국에 24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1994년까지 348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할 정책을 세워놓고 있고, 감리교 (기감) 의 경우 2000년대까지 300명의 해외선교사 파송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개신교 전체의 선교사의 숫자는 서기 2000 년대에 1000 명을 웃돌지 않을까 생각한다.¹⁾

이러한 선교적 潛在力과 열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믿는 地域 그리고 우리의 동족인 北韓에 대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임은 재언의 필요가 없다.

南北韓의 적대적 관계가 6.25 韓國戰爭 이후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인적 교류·서신왕래가 완전 차단된 형편이어서 어떠한 경로로도 북한사회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때에 共產圈 선교를 목표로 1956년부터 극동방송과 1973년부터 아세아방송이 설립되어 꾸준히 노력함으로 전파를 통한 선교의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1972년 정부의 7.4 南北共同聲明 이전에, 70년 신학자들의 南北統一 문제에 대한 논의가 基督教 잡지들에 특

註 1) 기독교사상 1988. 11월호는 해외교포 기독교인의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여러 자료를 제시하였다.

집으로 취급되었고 7.4 공동성명 이후에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선교를 위한 선교단체들을 개괄해 보면 표와 같다.

이름	대표자 및 간부	하는 일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사장 김장환 목사 선교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유관지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 선교방송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 공산권 교포지원사업 ○ 공산권 선교 계도사업
예장통합 북한선교대 책위	회장 문학선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을 통한 선교사 파송 ○ 방송선교 ○ 미국 NCC와 협의 ○ 월간지 발행
사단법인 기독교북한 선교회	이사장 길자연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선교지원 ○ 홍콩에 선교사 파송 ○ 통일촌 교회 운영 ○ 월간 “북한선교” 발행
아주문화원	이사장 최옥자 목사 회장 광선희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류를 통해 중국에 선교활동 시도
세계체육인 선교회	총재 김장인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인을 통해 공산권 선 수들에게 성경 및 전도지 전달
고신공산권 선교연구 위원회	위원장 전호진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선교연구

이 름	대 표 자 및 간 부	하 는 일
국제기독교 공동선교회	대표 김순권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CSI 와 연결, 박해지역에 대한 여론화와 선교방안 모색 ○ 선교방송 ○ 회보발간
중국선교회	총재 여용덕 목사 회장 김사명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대륙에 교회 설립 ○ 홍콩에 극동신학교 설립운영 ○ 방송선교 ○ 성경 보내기 ○ 전도문서 발행
생명의강 선교회	회장 주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선교대회 개최 ○ 홍보간행물 발행
사단법인 북한선교 통일훈련원	이사장 김창인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 보내기 ○ 통일촌교회를 통한 전도 ○ 북한선교 사명고취와 훈련 ○ 선교 신학원 운영
여의도순복음교회 산권선교회	회장 신경렬 장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선교 ○ 성경보내기 선교활동

이름	대표자 및 간부	하는 일
한국기독교 南北問題對 策協議會	대표회장 박종렬 목사 실무회장 지원상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회가 南北韓問題에 대해 한 목소리가 되도록 統一된 창구역활
러시아선교 회	회장 양세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선교 ○ 소련거주 교포들에게 성경보내기
UMA 선교 회	이사장 변상우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선교
중미기교회	회장 이성운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 동포위한 기도모임 ○ 중공교포 선교활동 지원 ○ 간증지 발행
감리교 북한선교회	회장 김수연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선교 인재 양성 ○ 서부연회 및 만주선교연회 ○ 통일후 북한교회 설립
중선회 (中善會)	총무 문일석 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양에 선교병원, 복장학원 미용학원 설립하여 선교
루터교대북 선교회	총회장 지원상 목사 김해철 목사	
北韓社會科 學研究院	원장 박완신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政治, 경제사회, 문화, 종교 조사등 제분야 연구

이름	대표자 및 간부	하 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전략 방법 및 매체 개발 연구 ○ 北韓學강의 및 세미나개최 ○ 北韓學 연구 저술

1988.10.23. 基督教聯合新聞.

특히 지난 2월 29일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民族統一과 주체에 관한 韓國基督教會宣言”이 발표되자 韓國의 거의 모든 개신교가 이에 대한 그들의 立場을 표하였고 거의 모든 교파들이 총회의제로 다루었고, 이 問題를 위한 특별연구위원회가 組織되었고, 많은 세미나들이 열려서 찬반의 격론을 벌였다.

요즈음 基督教新聞들이 거의 배호마다 北韓의 教會, 北韓의 宣敎, 統一問題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論爭들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은 韓國基督教會協議會의 선언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측이나 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측이나 모두가 北韓宣敎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南北統一에 큰 열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나. 北韓教會의 南韓教會와의 接觸意志

北韓教會가 南韓의 教會를 향하여 접촉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北韓教會의 접촉의지라기 보다는 北韓當局의 南韓의 基督教人들과의 접촉을 希冀하는 열망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基督教會는 그것

이 지하교회로 일컬어지는 침묵의 教會가 아니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면 北韓共產政權當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北韓의 해방당시 基督教人 수는 개신교 35 만명, 카톨릭教會 5 만 명을 합하여 약 40 만명의 基督教인들이 있었다.²⁾ 이들 모두는 일제의 基督教 탄압정책을 견디어 나온 사람들이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신앙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또한 조만식 등 民族的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많아서 정신적으로 組織化된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5년 쏘련군의 진주와 더불어 共產主義者들의 基督教탄압정책의 실시는 해빙후 6.25 남침이전에는 基督教에 대한 제한을, 그리고 전쟁기에는 탄압을, 휴전전후 시기에는 말살의 단계과정을 거쳐 北韓의 基督教을 극히 약화시켜 놓았다.

北韓을 위한 로비를 담당하는 독일 社會主義者인 린저 (Luise Rinser) 라는 여류작가가 쓴 北韓기행(1981년 출판)에 의하면 당시 평양인구 100 만명에 약 800명 정도의 基督教인이 있다는 基督教徒聯盟側에 속한 한 목사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그 목사의 자녀들도 基督教인이 아니라고 서술하고 北韓을 '하나님이 없는 나라' ('Land Ohne Gott') 라고 묘사하였다.³⁾

註2) 김용복, 민족분단과 基督教의 대응, 평화를 만드는 한국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편 1986, SS. 105-147.

3) Rinser, L : Nord-Koreanisches Reisetagebuch, Fischer Verlag, 1981, S.103.

요즈음 基督教徒聯盟側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北에 약 1만명의 基督教人이 있다고 한다. 이 숫자를 北韓全體人口를 2,000만명이라 추산하고 그에 비례하여 볼 때 0.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주 미미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들은 모두 基督教徒聯盟에 속한 사람들로 基督教徒聯盟이 가진 강령대로 政治的 目的 즉 “人民의 애국일”, “건국사업”, “민주조선건국” 등 北韓共產政權의 政治的 目的 밑에 존재하고 있다. 현 北韓의 基督教은 해방당시 공산당보다 우세했던 基督教가 결코 아니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共產政權에 의지해서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北韓의 가정교회에 참석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基督教徒聯盟에 가입한 사람들의 소득에서 자동적으로 내고 있는 종교세만으로는 어떤 선교적 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 불능상태에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일본 NCC 총무 미에지마 무미토시의 北韓訪問報告에 의하면 지금 北韓에는 20여명의 목사와 진도사와 장로 300여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중 목사의 생활비 출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聯盟의 전문직원인 목사

현재 聯盟의 전문직원으로서 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스태프는 20여명인데 그중에 목사 몇분이 포함되어 있다.

2) 도나 시의 위원회에 소속하고 거기서 급료를 받는 목사

3) 다른 직업을 가지고 수입을 얻는 목사

4) 고령으로 나라에서 사회보장을 받는 목사

따라서 1983년 基督教徒聯盟에서 출판되었다는 신약성서와 찬송가, 또 1984년 구약성서의 출판비용은 北韓政府當局의 부담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나아가서 1988년 11월초 완공을 본 평양의 개신교회당이나 카톨릭

릭성당의 건축비도 역시 北韓政府當局의 부담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南韓教會에 대한 北韓教會의 접촉희망은 北韓教會가 의존하고 있는 北韓政府當局의 의지와 직결된 것으로 본다. 이들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작이고 北韓全域에 教會堂이 한곳도 없는데도 조선기독교도연맹을 통하여 국제기독교기구들과 접촉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1974년 8월 2일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75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된 이른바 아시아기독교협의회에 참석하였다. 1976년 체코에서 개최된 基督教 平和會議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대남비방선전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통하여 세계기독교기구들에 참여케 할 뿐 아니라 南韓教會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한국교포 基督教人들을 초청하는 방식을 통하여, 또 비엔나에서 “祖國統一을 위한 해외기독교자회의” 등을 개최하며, WCC의 중재로 스위스 등지에서 北韓의 基督教徒聯盟 대표들과 韓國의 KNCC 대표들을 만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對 南韓基督教 접촉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6.25 戰爭이후 최초로 “教人들의 성의와 함께 50만달러”가 건축비로 쓰여져 지어진 새 교회와 새 카톨릭성당이 평양에서 봉헌예배를 드렸다하는데 이 건축을 통하여 南韓教會와 접촉하게 되는 수많은 계기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1975년 하달되었다는 김일성의 “비밀교시”에서 그들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겠다.

“우리는 종교를 반대하면서도 왜 중앙종교단체를 조직해 놓고 있는가 하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統一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적으로 많은 宗敎人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宗敎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訪問하는 많은 외국인들과 제일 동포들은 우리에게 왜 宗敎를 믿지 못하게 하는가고 묻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宗敎는 허용하지만 人民들이 각성되어 믿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 祖國 남반부에 수많은 宗敎人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宗敎人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들도 우리를 반대하는데 합세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불필요한 中央宗敎組織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⁴⁾

다. 카톨릭敎會와 北韓當局의 만남

카톨릭敎會가 北韓宣敎를 위하여 여러번 접촉을 시도하였을 것이나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서나마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4년 3월말 캐나다에 거주하는 韓國人 성직자 고마테오신부가 北韓을 訪問한 일이다.⁵⁾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기간중 北韓축구팀 환영만찬(캐나다정부 주최)에 초대받아 北韓축구팀 임원으로 부터 그의兄의 사진과 편지를 전해받고 또 북한을 訪問해 달라는 제의도 받았다. 1982년 12월 한국 카톨릭敎會 宣敎 200周年을 기념하여 발족된 北韓宣敎委員會가 고마테오신부를 북한에 파견함으로써 이일이 성사되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족을 만나는 일 이외에 카톨릭敎會의 정식 사명을 받는 신부로서 그는 끊어진지 오래되는

註 4) 공탁호증언, 국가정치보위부의 내막, 흥원사, S. 97.

5) 고마테오신부, 아 조국과 민족은 하나인데, 중원문화사, 1988.

카톨릭마사를 혼자라도 드리고 오겠다는 것과 카톨릭신교를 위한 탐색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그들대로 그의 訪問을 이용하여 北韓을 紹介하고 教育하고 教養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영화를 보여주고 만경대를 위시한 관광코스를 오가게 하고 주체사상에 대하여 討論이나 對話의 主題를 삼고 南韓의 여러 政策들을 비판할 뿐 아니라 고마테오신부를 통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얻고내고 있다는 점이다. 고마테오신부는 北韓 訪問후 北韓 宣教展望이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써 北韓의 늘어나는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정책을 제시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北韓은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서방세계의 협조와 도움이 없이는 영원한 개발도상국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평양방문시 저는 서방세계에 개방하려는 北韓의 의도와 노력을 똑똑하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北韓도 어느날 서방세계와 교류하는 개방사회가 되면 많은 서방사람들이 北韓을 찾아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적지않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北韓當局은 국가적 체면을 위해서라도 평양에 성당을 하나 세우는 것을 허가하든지 아니면 평양에 주재하는 서양인 천주교신자들을 위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라도 신부를 상주시켜야 할 것입니다.” 6)

1985년 9월 南北韓 “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共演團의 交換訪問” 때 지학순 주교가 北韓에 가서 고독한 미사를 집전하던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하여 본적이 있었는데 지 주교 역시 북에가서 그들의 가족들과 宗教的對話조차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註 6) 고마테오신부, 같은책 S. 143.

北韓當局과 카톨릭教會와의 공식적 접촉은 1987년 6월 8일~9일 평양에서 개최된 “南北協力에 관한 非同盟 特別 閣僚會議”에 北韓이 로마교황청에 업저버로 참가해줄 것을 제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로마교황청은 주세페 베르텔로 몬시뇰(당시 제네바 UN기관 교황청사절단 고문)과 장익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연구실장)를 업저버 資格으로 파견하였다. 이 使節團에 한국신부가 참여하게 된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후 1988년 6월 30일 평양에서는 “조선천주교인협회”가 結成되었음을 放送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관한 평양방송 내용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천주교인협회가 1988년 6월 30일 평양에서 結成되었다. 이날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 각지의 여러 천주교인들이 모여 結成모임을 가지고 協會의 結成과 관련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結成과 관련한 선언은 1987년 10월 協會結成 準備委員會를 구성하고 필요한 준비사업을 추진시킨 基礎委에서 오늘 協會를 結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시기 공화국 북반부의 천주교인들의 團體가 없었던 것으로 하여 천주교인들을 대변하는데서나 教會의 발전을 이룩하며 각국의 천주교인 및 團體들과 연대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일정한 제한성이 있었다. 이로부터 최근시기 천주교인들 속에서 늘어가고 있는 教會의 발전과 권익옹호, 敎人 상호간의 연계와 團結을 圖謀하며 사랑과 화해, 평화를 위한 복음정신에 기초하여 각국의 천주교인 및 團體들과도 친선을 발전시키 나가려는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協會를 結成하게 되었습니다.”

선언은 또한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공화국 북반부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權益을 擁護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정신으로 고양하며 사랑과 화해의 이념에 기초하여 교인들 사이의 聯合을 圖謀한다는 것과 全體人民들과

團結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천하며 다른 나라 천주교인 및 團體들과도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努力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結成모임에서는 朝鮮天主教人協會의 장정을 채택하고 회장, 부회장을 선거했다.”

조선천주교인협회의 結成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 현재 北韓에 700 명 밖에 남아있지 않은 천주교인들을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協會를 結成한 것은 기존의 카톨릭 박해정책에서의 수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放送에서 전하는 바 대로 “教會의 발전과 權益擁護”, “敎人 상호간의 연계와 團合圖謀”, “사랑과 화해, 평화를 위한 복음정신에 기초”, “애국·애족 정신으로 고양”, “전체인민들과 團結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천”, “다른나라 천주교인 및 團體들과도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努力” 운운……그 目的하는 것에 대한 서술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 目的이 단순한 宗教的인 영역을 넘어서서 政治的 目的 그리고 국제적 관계개선, 특히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의 매체로 이용할 여러 소지를 볼 수 있다.

더구나 장익신부 등 교황청 대표단이 평양을 訪問했을 때 5명의 카톨릭신자들을 만나게 했고 또 88년 부활절에 교황청 행사에 신자를 派遣해달라는 요청에 응했을 뿐 아니라 天主教의 神學과 思想을 研究키 위해 로마에 유학생을 派遣하였다.

註7) 평양방송 내용전문, 민족통일의 진로와 한국천주교회 한국천주교통일사목 연구소 편저, 1988, S. 64.

뿐만 아니라 신문에 보도된 대로 지난 11월초 봉헌한 평양 선교리의 카톨릭성당은 北韓當局의 카톨릭教會에 대한 최대의 우호적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카톨릭教會는 이를 북한선교의 기점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라. 改新敎와 北韓當局의 만남

1) “디아스포라”를 통한 접촉

디아스포라 (Diaspora, *διασπορά*)란 말은 그리스어로서 “흩어짐”을 뜻하는 낱말이다. 이는 이스라엘지역 밖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宗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다른 문화속에서 살면서 그들 고유의 것을 지켜가는 소수집단을 뜻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말함이고 基督敎的 立場에서 생각한다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 크리스찬들을 뜻한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 韓國人들이 세계 103개국에 약 600만명이 흩어져 살고 있다. 중국대륙안에서 약 200만명, 미주에 100만명, 일본에 100만명, 소련에 60만명, 캐나다에 5만명, 브라질에 일만천명, 파라과이 1만명, 아르헨티나 1만명, 중동지역에 13만명, 獨逸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에 3만명이나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教會가 서고 基督敎的 共同體가 만들어진다. 흔히 쓰는 말로 “중국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식당이 따르고, 일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혼다차가 따르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教會가 세워진다.” 고들 한다. 韓國人 基督敎人들의 신앙열기는 세계 어느나라 보다 높다. 미국의 韓人 人口가 8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평균 중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수입 2만~5

만달리의 사람들을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분류한다면 한국계 이민가정의 년
 평균수입은 25,234 달러에 이르니까 중류층에 속한다고 보겠다.

평균적으로 보아 백인들 보다 약간 밀돌지만 다른 유색인종들 보다는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이들 教會共同體 역시 자립을 넘어서
 서 선교사업이나 社會的인 일을 圖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
 국내의 韓人教會가 1950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80
 만의 일본교포들의 教會가 300개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때 대단한 숫자
 이다.8)

이 보다는 정도가 좀 덜하지만 남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교포
 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3개국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국명	교포수	교회수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천주교	안식교
브라질	4만	32	21	5	1	2	1	1	1
파라과이	8천	10	5	1	1	1	1	1	1
아르헨티나	3만 5천	28	20	1	2	1	2	1	1

기독교사상 1988, 11월호 S.71.

이러한 趨勢는 구라과에서도 다를바가 없다. 獨逸을 위시한 불란서 영국
 등에도 韓人社會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교회들이 서는 열심은 마찬가지이다.

註 8) 기독교사상 1988년 11월호

특집 “韓國 教會와 디아스포라선교” 참조

미주에 居住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비정착 이민, 둘째는 동화적 이민, 셋째는 변혁적 정착 이민이 그것이다.

비정착 이민이란 보통 이민 1세들로 이곳에서 미국의 문화와 호흡을 같이 하지 못한 채 극히 韓國的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이른다. 이민오기전 보다 오히려 더 애국적이 된다. 다시 韓國에 가고 싶어하는, 韓國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동화적 이민이란 이들은 韓國人임을 아예 잊어버린채 미국인으로 동화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다.

세째의 변혁적 정착 이민이란 기초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할 뿐만아니라 그것을 비판하여 변혁시켜서 새롭게 헤가려는 사람들이다.

특히 제일 유형인 비정착 이민의 類形에 속하는 사람들로써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祖國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이북에 故鄉을 두었거나 가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南北統一에 관한 問題에 관심이 지대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미국에 이민간 많은 基督教人들은 월남해 올때 共產主義者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아서 북한에 대하여 관심은 있으나 북한의 共產主義體制나 김일성정권에 대하여 심한 불신을 갖고 있고 北韓政權을 對話의 상대로 여기지 아니하려는 태도를 단호히 취한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 가운데 北韓이 선교의 분을 담고 基督教 발상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하여 선교의 努力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경주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북에 가족들이 있어서 그들의 사진이나 편지를 받고 건넬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무슨 국제회의니 가족상봉이니 하는 명목으로 북으로부터 제의가 오면 고민하다가 北韓을 訪問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北에 가서 가족상봉, 학술회의 이외에 北韓當局이 보여주려고 계획한 몇가지 사항들과 함께 北韓의 教會를 訪問하게 된다. 강양욱의 친구로 한때 서울에서 숭실대학의 학장을 役任하기도 한 김성락목사, 영락교회의 부목사를 지냈고 미국에서 목회도 하고 한국정부의 독재체제를 비판하는데 앞장을 서왔던 홍동근목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北韓을 訪問하여 北韓의 朝鮮基督教徒聯盟의 責任者들을 만났고 北韓의 “가정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1981년 11월에 美州등지의 한인교포 基督教人들을 초청하여 “祖國統一을 위한 北과 海外同胞 基督信者와의 對話”라는 이름으로 첫 회의를 가졌고, 1982년 12월 5일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民主化와 統一運動”을 연결지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당시 韓國政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反政府的인 人士들이었다. 基督教목사 7인, 대학교수 7인, 언론인 6명, 예비역 장성 2인의 해외기독교교포들과 北韓側에서 전금철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수상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2인, 장관급 4인, 학자 3인, 統一問題專門家와 5인의 이복목사들이 參席하였다. 北韓側에서 參席한 인물들의 무게로 보아 얼마나 이 모임에 비중을 두었나를 알 수 있다.

전금철의 「조국의 자주통일과 그 실천적 과제」, 양형섭(조선 사회과학원 원장)의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이란 제목의 주제를, 교포측에서는 최기환 박사의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김내중선생의 석방」, 홍동근목사의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자의 사명」등의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 모임에 참

가하였던 캘리포니아대학에서 韓國史를 강의하는 양은식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전남철, 양형섭은 둘 다 北의 立場, 곧 統一에 대한 시각과 統一된 조국의 존재양식에 관해 자기네 체제의 政策과 방안을 반영한 것이라면 최기환이나 홍동근의 주제는 자유스러운 개인적 立場에서 韓國社會의 잇슈를 다루고 있었다. 한쪽이 체제의 긍정적인 주장이라면 다른 쪽은 자신들이 속한 社會의 부정적인 측면의 관찰로 딱 대조적이었다. 국가대 개인, 전체주의대 개인주의의 政治와 宗教의 차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⁹⁾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비판을 피해 달라는 주문을 지켜가면서 미국인들에 대한 비판과 미군철수를 논하고 韓國의 민주화를 논하였다. 北韓에 대한 선교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남한의 基督敎會와 北韓의 基督敎의 대화가 아니라 共產主義와 교포基督人(故鄉이 이북이거나 그 가족들이 북에 남아있는 교포들과 반한국정부인사들)들과의 대화였다.

2) KNCC와 朝鮮基督敎徒聯盟

南北韓 基督敎간의 공식적인 접촉에 크게 기여한 것은 다름아닌 WCC(世界基督敎敎會協議會)였다. 1972년 7.4 공동성명이 있은 후 1974년 北韓 조신기독교도연맹은 아직 北韓에 보이는 敎會堂이 하나도 없다고 그들 스스

註9) 양은식, 누가 먼저 꿈을 가지고, 분단을 뛰어넘어, 양은식편지, 중원문화사, 1988, S. 393.

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10) 세계기독교기구에 참가를 소원하였다. WCC에의 가입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WCC 등 基督教 국제기구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사를 계속 타진하였을 뿐아니라 WCC와 관계된 여러나라의 NCC대표들의 北韓訪問 등을 환영하여 받아들였다. 1985년 11월 WCC의 국제부 간사인 나이난·고쉬씨와 에리히·바인개르트너씨가 그리고 1986년 4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NCC 대표들의 합동방문도 받아들였다.

이들 미국 NCC대표자 7명중에는 김인식, 이승만 손명걸 목사등 한국교포들도 포함되었다. 또 일본 NCC총무인 마에지마 무네토시의 北韓訪問이 허용되었고 1988년 7월에는 WCC 아시아지역국장인 박경서 목사가 北韓의 여러 곳을 訪問하기도 하였다.

위에 잠간 언급한 “조국통일을 위한 北과 해외동포 기독교신자와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北韓當局의 서방세계의 基督教와의 대화를 열망하는 끈질긴 바람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이에 상응하는 KNCC측의 努力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KNCC는 統一問題를 “신앙고백적 결단과 당면한 선교적 과제”로 보고 1982년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조직하였다. 민간차원의 통일논의가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KNCC의 발의와 요청에 의하여 1984년 10월 29일~11월 20일 일본의 도산소(東山莊)에서 WCC 국제문제위원회가 주관한 “동북아시아 평화와 정의에 관한 協議會”(Consultation on Peace and Justice in North-East Asia)가 열렸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의제는 동북아시아의

註10) 1972년 8월 9일 평양의 남북적십자회담당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강양욱과 한국측 수행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참조

問題였지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 主 議題는 한반도의 분단과 統一問題였다.

한국측에서 “한반도 분단현실”,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본 통일문제” 등 발제를 함으로 국내에서 민간주도의 統一論議가 어려웠던 당시, 국제대회의 형식을 빌어 진행되어졌다.

이 도산소협회의회의 공동결의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분단극복과 통일성취의 과제는 70년대에 전개했던 인권과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실천가능한 6가지의 과제를 설정했다.

① 이산가족의 접촉을 위한 努力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시도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적십자사, 유엔, 非同盟國 등 필요한 국제기구를 활용한다.

② 統一論議에 국민 모두의 주체적인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韓國教會가 앞장서야 하며 국제협력기관의 支援이 強化되어야 한다. 도산소協議會와 같은 성격의 國際會議를 韓國에서도 개최한다.

③ 한반도라는 상황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基督教의 행동반경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勘案하여 주변 동북아국가들은 물론 社會主義國家의 教會들이 체험한 바를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④ 南北韓 상호간의 뿌리깊은 오도된 적대관 및 적대관계 극복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투적인 편견과 強要된 적대관 및 선동적 반제국주의론의 과장과 무기화된 반공주의라는 장애를 극복하는 努力을 해야 한다.

⑤ 평화정착을 위한 統一論議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주도적 참여에서 소외되고 손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어온 청년층과 여성층의 광범한 참여를

고취한다.

⑥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적대관을 가장 첨예화시키고 있는 군비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겨냥하거나 배치된 모든 핵무기의 철거를 위한 운동에 구체적으로 參與한다.

이 모임에서 남북한 당사자들의 상호정보교환이 이루어져서 南北韓이 서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強調되었다.

도산소協議會 이후 KNCC 총회(1985.2)는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을 발표하였고 1985, 1986년 두차례에 걸쳐 KNCC 주관의 統一問題 協議會가 열렸다. 1985년 11월 WCC 실무대표단이 北韓을 공식으로 訪問하여 北韓基督教의 소식을 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였다.

1986년 9월 2일~5일 스위스 글리온에서 WCC의 알선으로 南北韓教會 대표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北韓에서는 朝鮮基督教徒聯盟의 통역관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과 KNCC측에서 여섯명의 대표단 그리고 WCC의 대표단이 모여 統一을 위하여 南北教會가 基督敎적으로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韓國側 參加者는 강문규 YMCA 총무, 김봉록 韓國監理教會會長, 김준영 WCC 중앙위원, 김소영 KNCC 총무, 김원식 前 KNCC會長, 이영찬 前 大韓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었고 北韓側에서는 김재연 基督教徒聯盟 중앙위원, 김남혁 基督教徒聯盟 신학교수, 김운봉 基督教徒聯盟 평양위원회위원장, 김지윤 基督教徒聯盟 중앙위총무, 김혜숙 통역관 등이 參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KNCC의 統一努力과 조치를 위하여 先導的인 역할을 감당한 것은 KNCC會員教團 가운데 韓國基督教長老會였다. 基督教長老會는 統一에 관한 교육자료 등을 출간하기도 했고 1986년 9월 총회때마다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총회결의로 선언하였다.

1988년 2월 29일 KNCC 총회는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敎會 宣言”을 採擇하였다. 이 宣言은 KNCC의 宗敎의 立場을 체계적으로 종합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앞으로 北韓政府當局이나 北韓基督敎와의 접촉에 있어서 基本路線의 淸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이다. 이 KNCC의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敎會 宣言” 이후 KNCC 가입교단내의 여러교단 특히 이들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 예수교장로회 통합측내에서 이 선언을 거부하는 세찬 反발이 일어났다.

基督敎長老會와 基督敎監理會 등 이 선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교단들이 있지만 이런 일부의 反발과 거부의 태도는 앞으로 여러가지 南北 접촉의 추이에 따라 KNCC의 分열내지는 위축으로 갈 가능성이 보인다. 뿐만아니라 KNCC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교단들에서 이 선언에 대하여 批判的인 의견들을 분명히 함으로서 統一論議를 중심한 論戰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KNCC의 선언은 대략 6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①正義와 平和를 위한 韓國敎會의 新敎적 전통, ②民族분단의 현실, ③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 ④民族統一을 위한 韓國敎會의 基本原則, ⑤南北韓政府에 대한 韓國敎會의 건의, ⑥ 평화와 統一을 위한 韓國敎會의 과제이다.

첫번째 항목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성령에 힘입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백성에게 자유와 자주의 희망을 심어주고, 일제에게 노예가 된 韓國民族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民族의 해방과 獨立을 위하여 선교하여 왔다”라는 대목으로 부터 3.1民族運動, 신사참배반대운동 그리고 1945년 “분단의 현실속에서 고통당하는 피난민들과 전쟁

고아들과 희생자들을 돌보아 왔다.”라고 회술하면서 이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 1970년대와 80년대 韓國教會의 人權 및 民主化運動이라는 것이다.

둘째번의 “民族분단의 현실”이란 항목에서는 “한반도의 南北分斷은 현대세계의 政治構造와 理念體制가 낳은 죄의 열매”로 규정하였다. 南北分斷으로 인한 비참에 대한 언급, 7.4 공동성명후 南北赤十字會談 재개와 이산가족고향방문이 이루어졌으나 극히 미흡하며, “민족분단이 장기화되면 양체제에서 인권은 안보와 이데올로기의 이름아래 유린되었고”, “자유는 抑壓되는 가운데 南韓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이데올로기에 교조적으로 집착해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째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에서는 “韓國民族의 分斷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냉전체제의 구조적 최악일뿐아니라 우리社會 내부의 構造惡의 原因이 되어왔다.”고 규정하면서 “韓國教會가 民族分斷의 역사적 과정속에서 침묵; 더 나아가서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한 죄를 범했음”과 “南韓의 그리스도인들을 반공이데올로기를 宗教的인 신념으로 고착화시키는 과정에서 北韓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同胞들까지도 저주하는 罪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네째, “民族統一을 위한 韓國教會의 基本原則”에서는 그 原則으로서 7.4 공동성명의 “①자주, ②평화, ③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民族的 大團結”의 3大 原則을 基本原則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이에 덧붙여서 “통일은 民族이나 國家의 共同善과 利益을 실현하는 것일뿐 아니라 人間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保障하는 것이어야”하며 “統一을 위한 方案형성이나 모든 논의과정에는 民族構成員 全體의 民主主義的 參與가 保障되어야” 될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섯째 “南北韓 政府에 대한 韓國教會의 건의” 항목을 보면 ①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② 분단극복을 위하여 민간기구의 統一論議 및 運動參與의 활성화 촉진과 이념 반대자들에게 양심과 신앙에 立脚한 비판자유허용과 안전보장의 촉구, ③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적대감을 없애고 상호비방중지, 교류증진, 상호개방의 확대 ④ 南北韓 緊張緩和와 평화증진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위하여 참전국들인 南北韓, 미국, 중공등이 휴전협정을 平和協定으로 전환시킬 것과 한반도의 安定이 保障되었을 때 주한미군철수 및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군사력감축, 핵무기사용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⑤ 민족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南北韓의 協商이나 會談, 국제적 협약에서 외세의 간섭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民族의 삶과 이익에 일치하지 않는 외교적 협상조약의 수정과 폐기를 주장하였다.

마지막 항목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韓國教會의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는 1995년을 “平和와 統一의 희년”으로 선포한다.
- ② 韓國教會는 平和와 統一을 위한 교회갱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 ③ 韓國教會는 平和교육과 統一교육을 시행한다.
- ④ 韓國教會는 희년축제와 예전(禮典)을 통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참다운 화해와 일치를 실천한다.
- ⑤ 韓國教會는 平和와 統一을 위한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88년 4월 25일~29일 인천에서 WCC의 중요인사들을 내한케 하여 “世

界基督教 韓半島 平和協議會”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KNCC의 선언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였다.

KNCC의 선언이후 남북기독자들의 접촉이 스위스 글리온¹¹⁾에서 있었는데 이 모임은 KNCC의 2월 29일선언이 앞으로의 이들운동의 基本路線의 천명이라면 이에 따른 첫번째 시도여서 주목을 끌고 있고 또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11월 24, 25일 스위스 글리온에서 있었던 WCC와 南北韓基督者 連席會議는 南北基督敎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南韓 KNCC에서 성공회 김성수 주교, 김형태 목사, 조용술목사, 구세군의 김석태 사령관, 이효재교수, YMCA 강문규 총무, 그리고 장로회 통합측의 이의호목사 등 11명이 參席하였고 北韓側에서는 고기준 목사(朝鮮基督敎從聯盟), 김운봉 목사(연맹평양지부 부위원장), 이송봉 목사, 김남혁(聯盟指導員), 김혜숙(여통역) 등 7명이 參席하여 공동의 기본문을 작성하였고 또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위에 언급하였던 “1984년의 도산소회의 정신과 합의사항들”, 1986년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採擇한 “한(조선)반도 平和와 統一에 관한 성명서”,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敎會선언”, 동년 4월 인천의 “韓半島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督敎 世界大會”의 메시지 등에 나타난 정신과 합의사항을 지지한다고 말함으로써 글리온선언의 역사적 연원과 그 정신사적 맥락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平和의 왕이 되

註 11) 글리온 모임에 관하여는 1988년 12월 3일, 10일의 크리스찬신문 基督公報 등 基督新聞들에 報道되고 있음.

시며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되게 하심을 고백하고 한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불신과 반목이 세계강국정치 때문이라고 현실을 진단한뒤, 군비경쟁·이념적 집단화를 지지하였던 것을 회개한다.

한(조선)민족의 평화와 統一을 위하여 다음의 原則과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① 한(조선)반도의 平和와 統一을 위하여 南北教會는 1995년을 統一의 禧년으로 선포하고 8.15 직전 주일을 공동기도일로 지킨다.

② 7.4공동성명의 정신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의 原則의 확인, 현재 양체제의 존속이 保障되는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한 統一國家 수립.

③ 한(조선)반도의 統一의 주체는 南北의 민중당사자임을 확인, 외세배제, 南北韓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參與로 統一 이룩.

④ 동북아시아의 平和의 전제가 한반도의 統一이다.

⑤ 統一에 필요한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南北韓教會가 노력할 것을 권고, 세계교회의 노력도 요청.

⑥ 군비축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정전협정을 平和協定으로 체결.

⑦ 이산가족 재회, 각종교류는 시급한 과제이나 현재의 군사적·정치적 대결상태를 외면하거나 망치한 상태로 이룩될 수 없다.

KNCC의 2.29선언이 있은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北韓의 基督教徒聯盟에서 이를 지지하는 성명발표가 있었고 이 北韓의 태도 표명으로 보아 南北韓基督教教會의 만남과 統一論議의 기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KNCC 대표의 한사람이었던 김형태 목사는 기자들에게 이번 클리온 선언을 “1986년 2월에 있었던 1차 南北韓 개신교대표회의의 후속회의로서,

한반도 統一을 위한 성서적 토의가 주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글리온 선언 초두에 KNCC의 2.29 선언의 지지를 표명함은 이를 다시 확증하였다. 그러나 글리온선언은 2.29 선언에 대하여 볼때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글리온선언을 계기로 나타난 발언 등에서 KNCC측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알아 볼 수 있다.

특기해야 할 몇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南北韓教會의 상호교류의 기대에 대하여 北韓의 基督教從聯盟側도 이를 찬성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듯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에 남북의 緊張을 緩和시킬 수 있는 군사적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는 立場을 분명히 하였다. 이산가족의 재회 역시 군사적・政治的 대결상태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로는 불가능함을 글리온 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하였다.

둘째, KNCC의 2.29 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통일을 위한 韓國教會의 基本原則의 장”에서 말하고 있는 “統一은 곧 민족의 삶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반평화적인 분단을 극복하고,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共存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의 平和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된 귀절을 글리온선언에서는 “한민족의 統一努力이 현재의 양체제의 존속이 保障되는 平和共存의 原則에서 統一國家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말함으로 그 뜻을 한정적이고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남북연방제적 統一을 暗示하고 있다.

셋째, 新聞報導에 의하면 北韓의 조선기독교도연맹의 대표자들이 “南北統一에 대한 立場은 곧 政府와 教會가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이유는 “北韓에서는 모든 國家政策이 곧 人民의 지지에 따

라 수립되고 수행되기 때문에 政府의 의견은 곧 人民의 의견이다.”¹²⁾ 고 설명했다 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고 하는데 이는 그들의 「教會가 곧 政府요, 政府가 곧 人民이다」는 基本的 이해는 결과적으로 朝鮮基督敎徒聯盟이 政府와 얼마나 유착되어 있으며 그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말하여주는 것인 동시에 그들의 말하는 민중의 개념과 KNCC의 민중의 개념이 相違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朝鮮基督敎徒聯盟側은 南韓의 “북한선교대책위원회”나 “북한선교회” 같은 선교단체들이 그들과의 대화의 상대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서 오직 KNCC를 통하여 그들과 對話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北韓側 대표자들은 특히 南韓의 ‘북한선교대책위원회’나 ‘북한선교회’ 등 北韓宣敎團體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여 한 참석자가 십자군처럼 北韓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北韓側 대표자들은 「말도 안된다」며 한마디로 일축했다”¹³⁾ 고 전했다.

註 12) 크리스찬신문, 1988. 12.3일자.

13) 크리스찬신문, 1988.12.3일자.

5. 基督教의 統一論議들

가. 카톨릭教會의 統一論議

카톨릭教會의 統一論議는 아주 근래에 시작되었다. 개신교의 다양한 統一論議들의 다양한 論戰的 개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統一論議라기 보다는 統一에 관련된 教會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카톨릭教會가 北韓에 평양교구, 함흥교구, 덕원면속수도원교구등 세개의 교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신도들이 55,000명이나 되었음은 위에서 논급한 바가 있다. 남북분단이후 北韓에서 흑심한 카톨릭박해정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제는 약 700명의 신도들이 北에 남아있으나 北韓에 신부들이 남아있지 않고 교회당도 없어서 미사집전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한국천주교는 평양교구, 함흥교구, 덕원면속교구를 그대로 두고 그의 재치권인 교구장서리를 임명해 놓고 있는데 이는 北韓지역에 대한 이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北韓의 사목선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나 論議들이 진행된 것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北韓宣敎問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論議가 시작된 것은 카톨릭 韓國宣敎 200周年을 맞았던 몇년전의 일이었다고 카톨릭教會내에 “北韓宣敎委員會”가 발족되고 이 기구안에 “통일사목연구소”가 설치된 것은 1988년 초의 일이다. 이는 카톨릭教會내에 統一論議가 활발하지 아니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統一의 論議들이 카톨릭教會내에서 격렬하게,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이들의 관심이나 지식이 적어서가 아니라 오

히려 카톨릭教會에는 19세기 이래로 社會主義, 資本主義 그리고 民族主義 등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政策을 확실히 견지해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의 극단적인 基督教에 대한 적대주의와 박해정책으로 北韓 신교와 統一論議의 실용성을 의심케 했고 따라서 統一論議가 활발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제 “통일사목연구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미나와 발표되는 논문들을 통하여 활발히 이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카톨릭教會의 統一論議는 그 대부분이 19세기 이래로 論議되어져 왔던 카톨릭教會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등에 대한 基本的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란서대혁명, 산업화와 사회문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독일과 이태리의 統一 등에서 나타난 民族主義 運動 등 19세기의 정치사회적 격랑속을 카톨릭教會는 기쳐 왔고 이러한 동안 일관되고 통일된 사회적 태도가 형성되어 왔다. 독일의 카톨릭 사회운동가들인 바더 (Franz von Baader), 불리 (Adam Müller), 라도비츠 (Radowitz), 부스 (F.J.Buß) 등 병신도 학자와 政治家들, 그리고 콜핑 (Adolf Kolping)이나 케텔러 (W.E.Ketteler) 등 사제들의 저술들에서,¹⁾ 19세기말에는 레오 13세의 “Rerum Novarum”에서 그리고 1930년대의 비오 11세와 그를 이은 비오 12세 Quadragesimo Anno 등 여러 회칙을 통해서 카톨릭적 基本立場들이 천명되어졌고,²⁾ 19세기의 카톨릭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그들의 基本路線들이 천명되었던바, 이

註1) Schnabel, F.: Deutsche geschichte im 19. Jahrhundert, Bd. 4 SS. 202-220.

2) 김봉은, 카톨릭의 대 공산주의정책, 基督教思想, 1972. 11월호, SS. 35-41.

것들은 하나님과 教會에 대한 그들의 고백과 더불어 토마스 아퀴나스적 자연법사상에 근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유기체주의와 사랑의 가부장주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아퀴나스의 이론은 19세기라는 구체적인 사회상황 앞에서 적용해 보면 세가지의 原則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인격의 原則(Das Personsprinzip),³⁾ 둘째, 연대성의 原則(Das Solidaritätsprinzip), 세째 보조성의 原則(Das Subsidiaritätsprinzip)이 그것이다.

이 運動들은 구체적으로 19세기 구라파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 첫째로, 革命을 통하지 않고 社會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그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로, 자유주의적인 경제적·정치적 주장이나 社會主義的 政治經濟理論을 부정하였다. 세째로, 신앙과 도덕을 회복하는데 힘썼다. 네째로 카톨릭教會가 다른 政治的 힘에 의하여 結定되는 것을 막아내려는 政治的 의도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이 社會主義등 다른 政治的 주장에 의하여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카톨릭노동조합운동등은 실제로 노동자와 社會主義 革命的主張과의 결합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韓國의 카톨릭적 統一論議의 基本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카톨릭적 統一에 관하여 발표되고 있는 모든 論議의 공통점은 共產主義에 대한 그들의 이해이다. 19세기 교황청 당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리고 20세기 특히 1930년대의 비오 11세와 그에 이어지는 反共主義的

註 3) "Katholisch-sozial" : in ;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J.C.B. Mohr Tübingen 1963 ss. 1199 ff.

路線과, 공산주의자들의 무신론적 이론과 그들의 기독교 탄압정책을 한국카톨릭교회의 共産主義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한다. 뿐만아니라 해방이후 北韓共産主義者들이 카톨릭교회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政策으로 일관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구조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안에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4)

“북한공산주의는 정권을 장악한 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要求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카톨릭은 오늘날 가장 전투적인 대립과 시련을 共産主義와의 만남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정권은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종교관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革命思想家들의 영향도 받았는데 이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보다도 훨씬 더 반종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5)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폭력혁명의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대남폭력사업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는 죄 많은 가공할 집단임에 틀림없다. 6.25를 일으켰고, 파괴교관을 획책하는 무장간첩을 끊임없이 남파했고 더욱 계속할 것이며, 버마 아웅산의 암살 폭발테러사건, KAL 858편 폭파테러사건 등 민

註 4) 양한모, 민족통일에 관한 사목적 연구의 과제, 통일사목의 좌표와 방향,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편저, 1988, S. 34.

註 5) 이동호, 아파스; 북한선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통일사목의 좌표와 방향,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편저 1988, S. 57.

族의 양심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6)

양한모씨는 그의 글속에서 “공산주의의 휴머니즘적 동기를 認定할 수 있을지라도 이들이 물질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소외라는 새로운 양상을 빚어 내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北韓共產主義는 실상 자본주의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역 그것이 共產主義를 설명하는 기초어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教會의 대적자, 폭력을 사용하여 民族的 平和를 파괴하는 가공할 집단, 그리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반인간적 집단이라는 基本的인 北韓에 대한 부정적 이해가 統一사목을 論하는 이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이러한 北韓共產主義 政府當局과의 대화의 시도는 이들의 도덕성때문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오는 교회적 의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共產主義者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의 테두리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 구원의 성사로 새로워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 7) 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카톨릭教會의 基本的 立場은 共產主義者와 共產主義的 學說을 구별한다.

共產主義者는 선교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共產主義的 學說은 教會의 敎理와 전면 대립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카톨릭教會와 北韓政府當局과의 대화는 “공의회는 공회를 반대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教會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대화에 제외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의 만남

註 6) 같은책, S. 59.

7) 이동호 아파스, 격려사, 통일사목의 좌표와 방향, 1988. S. 10.

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마르크스주의와 근본적으로 대결하는 카톨릭인으로써 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과학과의 객관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北韓共產集團의 마음과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활동, 그들의 생활과 구체적 환경을 變革시킨 것이라고 믿는다.

北韓當局과 카톨릭教會의 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세계적으로 共產主義가 變化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 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의 새정책이나 국제정세등의 變化가 대화의 장을 열어줄 때가 올것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러나 韓國 카톨릭教會는 그들의 立場이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복음이라는 제3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기졌던 친미적 경향도 수정할 수 있는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Pax Christiana와 Pax Americana는 구분되어야 하며 8) 이러한 그들의 자세의 반성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민족통일을 教會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일치”의 행위로 보았다. 제2차 바타칸 공의회는 세계사복헌장1항에 “일치의 축진은 바로 教會의 본질적 사명과 일치한다. 教會는 社會의 진실한 외적 일치가 정신과 마음에 기인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준다.”는 선언이 말하는 대로 민족성원 사이의 일치, 남북한 政權과 이질적인 두 체제의 화해와 일치, 군사력

註 8) 조광, 분단체제의 성립과 현대 한국카톨릭教會, 통일사복의 좌표와 방향, 1988. S. 45

의 감축을 통한 일치와 經濟協力을 도모케 함으로써 민족통일에 기여하게 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치는 北韓이 남한에 복속됨으로 혹은 南韓이 北韓에 복속됨으로 이루는 일치를 뜻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차라리 個人과 社會構造의 개혁이라는 끊임없는 2중적 개혁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社會로 變化시킴으로 “불신 없는, 소외된 계층없는, 빈부의 격차 없는 統一된 社會를 이룩하고” 9)의 상으로 설정하고 또 南이건 北이건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추세를 불식한 민주화된 社會를 民族的 統一社會의 상으로 설정하고 이것에 서로가 접근해 가야 됨을 暗示하고 있다.

카톨릭教會의 統一열망은 北韓의 침묵의 지하교회, 평양교구·함흥교구·덕원면속교구 등 고통을 받는 韓國教會의 중요한 지체들이 그 생명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이로 말미암아 침묵의 教會에 생기를 불어넣는” 선교적인 열망에 직결됨을 공언하고 있다.

나. 改新敎의 統一論議

1) 1970년 이전

국토분단 이래 1970년대 초반까지는 韓國教會의 統一論議로서 반공통일론이 지배적이었다. 이 기간은 냉전이라고 불리는 양극화 시기였다. 물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선언이 이보다 훨씬 앞서 선포되었고 세계적으로 해방의 조짐이 나타나며 다극화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註 9) 양한모, 같은 논문, 같은책 S. 36.

모이는데도 6.25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벗어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제3공화국의 등장 이후 平和統一이 政策으로 採擇되었지만 이를 실감하게 되는 것은 1972년 7.4 南北共同聲明 이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면 1970년대까지는 분명 냉전의 시기였다. 이 기간동안 反共統一論이 教會의 유일한 統一案이었던 것은 양극화 체제라는 政治的 要因에 기인된 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基督教과 共產主義의 적대적 관계는 이미 뿌리 깊은 것이었으며 北韓의 基督教 말살정책과 6.25 전쟁 당시 南韓에서의 基督教에 대한 박해의 체험 등은 이를 더욱 더 뿌리 깊은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共產主義와의 대결과정에서 일남한 北韓出身 基督教 지도자들의 체험이 韓國 基督教의 반공적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¹⁰⁾

6.25 전쟁 당시 韓國教會는 적극적으로 반공전선에 참여하였다. “한국 기독교원호회” “대한기독교회” “대한기독교구국회” “북한교계방문사절단” 등 기구들이 피난해서 내려가는 도시들에서 결성이 되어 혹은 구호, 혹은 선무, 방송, 더 나아가서는 공작의 일까지도 담당하였다. WCC는 韓國전쟁에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여 세계여론에 호소하기도 하였고, KNCC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는가 하면 한경직, 유형기 목사 등을 미국에 파견하여 그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이 기간동안의 統一論은 이승만 박사의 북진통일, 그리고

註 10) 김용복, 民族分團과 基督教의 내용, 분단현실과 統一連動, 민중사, 1984. p. 204.

UN의 도움을 통한 통일,¹¹⁾ 그리고 反共統一이었다.

1960 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基督教 반공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통일축성이복인대회”¹²⁾, “한국기독교반공연맹”¹³⁾ 등이 조직되는가 하면 반공강연회, 아시아기독교반공대회 등의 집회들이 개최되었다. 물론 당시의 반공의 논리가 무력을 통한 공산주의의 극복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김인서 목사 같은 분은 반공을 위한 회개를 역설한다.

“나는 분명히 고하노니 북진할 기회는 왔다. 우리의 인적자원이 비록 많지는 못하지만 청천강까지는 넉넉하다. 하면 되고 아니하면 망한다. 이상은 세계 정세요, 우리의 기회이다. 그러나 기도중에 보는 韓國사람과 韓國教會는 아직 멀었다. 회개가 되지 않았다. 동란 후 부산에 내려 밀릴 때는 회개의 빛도 있고 근심의 모양도 있더니 구제품 양복이 번지르르해지니 도로 옛 버릇이요 당파싸움이 다. 세계 정세, 우리의 기회는 닥쳐오건만 신앙 상태, 교회 정세는 아직 멀었다.”¹⁴⁾

홍 현설 목사 같은 이는 共產主義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속으로 基督教가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의 반공의 논리를 피력하였다. 물론 이는 구라파의 基督教 社會運動들의 목표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늪을 건조시킴으로 혁명을 막아내겠다는 구라파 社會運動을 연상시키는 말이요, 감리교운동의 웨슬레 형제가 노동자 속으로 들어갔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다.

註 11) 기독교보, 1958년 1월 참조

12) 1961년 5월 조직된 이 모임은 고한규, 백난준, 선우훈, 이용설 등이 이 모임의 고문을 맡았다.

13) 김득황이 회장을 맡음. 1966년 창립됨

14) 김인서 <평양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신앙생활 1953. 3.4월호

“……어디든지 基督敎人의 세 포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그리스도의 敎會가 이 세상의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만치 그리스도에게서는 멀어지고 유평주의적인 生活態度로 결과적으로는 共產主義者들의 진영에 더 많은 사랑을 넘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15)

반공통일논의가 두드러지게 敎會에서 問題가 된 것은 WCC의 용공성시비와 1960년대의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비판에서였다. 1954년 6월부터 KNCC내에서 WCC의 용공성 問題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WCC란 원래 “世界敎會協議會”란 발로써, 신조와 직제 그리고 敎회의 政治를 달리하는 세계에 산재한 개신교회들이 모여 宣敎와 社會에 대한 봉사과 증거를 목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교환하고 활동의 힘을 규합하여 복음전파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어가려는 연합체적 모임이다. 물론 이 WCC에는 공산권의 基督人을 대표하는 敎會들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성명이나 결의들이 서방세계적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따라서 가끔 WCC의 용공성의 문제는 서방국가에서도 언급되어지는 바였다. WCC의 용공성의 시비가 1959년 9월에는 예수교장로회 호남지구 교역자수양회에서 WCC 탈퇴성명서를 내기까지 하였다. 이 問題에 즈음한 KNCC의 선언은 당시의 基督敎의 反共統一論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

註 15) 크리스찬 신문, 1960.12.10.

“에큐메니칼운동은 세계교회들이 教會의 머리되시는 한 주님안에서 피차에 하나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무조건 教會를 합동시키는 단일 教會運動이나 비성서적인 신학사조를 주장하거나 용공운동을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共產主義者와 로마 카톨릭主義, 그리고 신앙사상의 혼합주의 등을 절대 배격하고 있다.” 16)

4.19 이후 등장한 中立化統一의 論議들,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맨스필드의 韓國의 오스트리아식 中立化案의 발언이 있자 이에 대하여 중립화식 統一이란 共產主義 統一과 이어질 수 있음을 내다보면서 신학자들과 教會 지도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또 共產主義와의 대결을 위하여 복음애의 충실 그리고 사랑의 실천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떠돌아다니는 소리에 의하면 중립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8.15 해방이나 6.25 사변까지라도 우리들의 의사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고 타방에 의한 소치였다고 한다면 統一도 역시 우리의 원, 불원을 막론하고 어떤 世界政治的 추세의 결과로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北韓政府가 전적으로 양보하는 형식으로 우선 統一을 성립시켜 놓고 차후에 지하공작과 선전에 의해서 다시 공산세계를 만들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때에 그런 統一이 실제로 될 것을 예상하여 그날을 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것이다:.....

.....오늘 당장에 우리에게 손 벌리고 애원하는 사람들에게 참사랑을 베풀자. 그것이 오늘 시작될 때 내일 問題는 해결되리라” 17)

中立化統一論을 즈음하여 共產主義와 대결해서 승리하는 반공주의적인 논문들이 당시 1961년 1, 2월의 基督教 신문과 잡지들에 많이 실렸었

註 16) 기독교보, 1959. 12.21.

17) 박창환, 크리스찬 신문, 1961. 1월 14일

는데 위에 인용한 홍 현철, 박 창환 교수등의 사상의 실천의 방법에 의한 노동자와 소외당한 계층속으로의 침투에 의한 共產主義의 극복이 역설되는데 조 향복, 강 원용 목사등의 글 속에서는 “인간의 존엄, 인권의 절대적 자유의 수호의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와 社會正義를 실현하려는 의욕”,¹⁸⁾ 그리고 民族共同體 속에 침투해서 헌신할 것 등이 강조되기도 한다.

2)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南北問題에 큰 진전이 있었다. 특히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의 성명은 北韓에 대한 韓國政府의 態度를 크게 수정하는 것이었다. “南北韓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 시행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은 이제까지의 南北問題에 대한 관행으로 보아 획기적인 것이었다. 또한 다음해인 1971년 8월 20일에는 南北離散家族찾기회담을 위한 南과 北의 대표가 관문점에서 분단 26년만에 만나는 감격적 순간을 맛 보았다. 그 다음해인 1972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자주통일, 평화통일 그리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民族的 대단결로서의 統一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統一을 향한 노력들이 基督教의 統一論議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基督教界의 일각에서는 南北접촉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민주적 가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7.4 성명에 나오는 ‘이념의 초월’ 등의 어귀가 갖는 애매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註18) 박창환, 크리스찬 신문, 1961. 1월 14일.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統一을 대비한 신학적 작업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基督教思想’ 1970년 12월호는 그 특집으로 ‘教會와 韓國統一’을 다루었다. 한철하, 김관석, 한완상등 여러사람이 이 특집에 기고하였다. 72년도 ‘基督教思想’ 10월호는 “南과 北”을, 11월호에는 “마르크스주의와 종교”를 그 특집으로 다루었다. 기타 ‘基督公報’와 ‘크리스찬 신문’ 등에서는 “南北統一과 관련된 基督教的 자세”나 “신학적 과제” 등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당시에 나타난 신학적 논조들은 반공적 논조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측과 체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존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한경직 목사를 중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북한선교위원회의 「북한자유화 촉진대회」(1972), 김세진 목사가 이끈 「祖國統一 基督信徒聯合會」, 범교단 지도자협의회가 주관했던 「韓國基督教反共聯合祈禱會」(1975), 제3차 「世界基督教反共聯盟大會」 개최(1975),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義 「판문점 도끼만행 살해사건에 대한 규탄성명」(1976) 등은 이러한 반공적 논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모임들이었고 基督教 全體的인 분위기도 이러한 쪽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北韓에 대하여 대화상대로서 낙관적판단을 경계하고 또 韓國教會 자체의 회개와 갱생을 다짐하였다. “체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존적인 대화를 모색”해 가려는 신학적인 논의들도 共產主義를 신뢰하거나 그들을 선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오히려 경계적인 태도, 감상주의에 대한 경고 등으로 부터 시작한다.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처럼 볼리우는 韓國神學大學 계통의 조항록 목사와 안병무 박사는 다음과 같이

7.4 선언을 평한다. “그러나 이 초월한다는 말을 들은 우리 基督教人들은 教會的 立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념과 사상과 체제를 초월하겠다는 그 의도의 정신만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그러나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 때 여기에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¹⁹⁾ “7.4 共同聲明의 내용자체는 다분히 感傷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²⁰⁾

당시의 신학자들 대부분은 이를 “많은 問題點이 있다.”, 혹은 “다분히 감상적”이란 표현을 쓰면서도 무력적 대결의 방법이 아닌 “공정한 경쟁” 그리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였다.

統一을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로 사회와 教會의 회개를 의친다. 統一 혹은 만남을 말하는 모든 글들은 회개를 강조한다. 둘째로 국민적 단합, 즉 基督教人들과 非基督教人들의 연계적 제휴로 소외당한 계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세째로 자유가 保障되는 社會에서는 시민적 훈련을 강조한다.

1970년 당시 統一神學이 論議될 때 마르크스주의와 基督教의 공존과 대화를 생각하면서도 늘 대결이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共產主義를 基督教의 복음에 눈뜨게 하는 선교를 장기적 목표로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대결개념은 결코 힘의 대결이 아니었음을 다음 표현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 전제 밑에서 우리 스스로를 견제하고 절제와 훈련을 쌓아 나가서 강한 인간, 자신 있는 인

註 19) 조향복, 새 韓國을 잉태하는 진통속에서(대담), 基督教思想, 1972.

10월호, SS. 67.

20) 안병부, 위와 같은 (대담), S. 67.

간,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으나 누구를 위해서도 섬기는 인간상이 최선의 가치로 설정될 때, 우리는 북괴와의 만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책임있게 대결 혹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당시의 統一을 위한 여러 신학적 논의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함축적 내용을 제시한 것은 보수신학자에 속하는 한철하 박사였다. 1970년 12월호 ‘基督教思想’에서 “南北統一과 宣敎戰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7.4선언이 있는 후인 1972년 10월호 같은 잡지에는 “너와 나의 만남과 南北交流”라는 논문을 “만남의 신학”이란 부제를 붙여 발표하였다. 이 글들 속에서 저자는 統一을 基督敎的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고 統一의 原則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南北統一과 선교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 상대방 존재의 인정, 共同의 가치척도의 전제위에서 이루어지는 선의의 경쟁단계에서 상호교류의 단계로 그리고 統一의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統一論을 제시하였다. 특히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서 교류의 단계에 이르면 예술, 문학, 영화 등의 交流가 시작되어 양체제의 基本理念의 交流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는 양체제는 서로 붕괴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交流는 자유로운 왕래라고 보았다. 이리하여 궁극적으로 동질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멀리 전망하면서 南北交流에서의 基督敎的인 최대 관심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北韓의 체제인 共產主義속에 基督敎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자리잡을 수 있을까? 따라서 공산주의 자체가 얼마나 변질이 가능한가? 한마디로 말하여 基督敎的 原理에 맞는 南北統一이 가능한

註 21) 김관석, 教會와 韓國統一, 基督教思想, 1970년 12월호 S. 35.

가의 問題로 된다.” 22)

이 論文에서 한박사는 共產主義者와 基督教人의 對話를 위한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동구라파의 공산주의자와 基督教人의 對話에서 많은 시사를 얻고 있다. 共產主義가 비록 基督教와는 많은 점에서 적대적이나 그 기원은 基督敎的인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共產主義者나 基督教人 모두의 관심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화”의 問題, 더 나아가서 “共產主義나 基督教人이나 자기들이 살아온 기존사회가 완전한 社會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일” 등이 對話를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南北對話의 공통의 관심적 요소로 “民族主義”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民族主義的인 것들에 대한 論議들이 “基督敎的 理念에 맞는 民族形成”을 향하여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韓國統一問題에 입하는 韓國教會의 자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는 사회윤리적인 새로운 결단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基督教은 오히려 社會的 가치기준에 대한 의식적 정리를 단행하며 또한 그가 목표로 하는 社會的 비전을 명확히 내세우는 가운데 먼저 남한에 있어서의 統一韓國의 예언적 社會建設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체제하에서 노동자가 더 행복하게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전에는, 또 이 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들을 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23)

註 22) 한철하, 南北統一과 宣敎戰略, 基督教思想, 1970년 12월호 S. 47.

23) 한철하, 같은 논문, 같은책, S. 53.

3) KNCC의 2.29 선언을 前後한 統一論議

1988년 2월 29일 KNCC의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관한 韓國基督敎會宣言」의 발표는 韓國基督敎統一運動史에 여러모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 선언을 중심한 찬반의 論議들이 계속되었고 앞으로의 統一運動에 큰 영향을 줄것이 확실하다.

KNCC의 선언은 WCC의 도산소協議會 “보고와 건의안”(1984), 제4회 한·북미교회협의회 메시지(1986), 미국교회협의회 정책성명인 “한반도의 平和와 統一”(1986), 제6차 한·독교회협의회 공동성명(1987) 등에 나타나 있는 제안과 立場들을 지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오랜기간동안의 흐름속에서 본 선언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 선언의 “정의와 平和를 위한 韓國敎會의 선교적 전통”이란 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1970년대와 80년대의 ‘인권 및 民主化運動’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다.

“분단의 고착화와 함께 안보를 구실로 군사독재체제를 강화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성장논리로써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하는 정권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정의와 平和를 위한 신앙으로 저항하여 왔다. 1970년대와 80년대 韓國敎會의 인권 및 民主化運動은 이와 같은 正義와 平和를 위한 선교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²⁴⁾

위의 논급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당국이 統一論議를 “군사독재체제의 강화”의 구실로 이용하였고 “인권유린”의 論理로써 사용하면서, 統一자체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민주화운동을 추진하여 왔던 基督敎界의 일부 인사들이 1970년대 말부터 統一問題와 인권문제와 民主化를 연결시키면서 基督敎的 統一運動을 전개시켜가기 시작하였다. 1979.

註 24) KNCC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관한 韓國基督敎會宣言」, 1988.2.

4.15 KNCC는 統一問題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基督敎의 社會正義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표현된 이 발표는 유신체제와 충돌을 불가피하게 했다. KNCC의 ‘理念問題研究協會’는 1979년 6월 “신앙은 모든 理念을 능가하고 설교는 理念을 초월한 구원활동”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반공을 구실로 民主主義와 社會正義 실현을 뒤로 미루거나 희생시키서는 안된다는 立場을 분명히 하였다. “신앙이 모든 理念을 능가한다”는 표현은 基督敎가 南과 北의 政治理念을 넘어선 초월적 立場에 선다는 뜻으로 당시 政府의 비민주적인 것에 강하게 맞서는 것이었다. 제 5공화국 때에도 통일문제와 민주화 및 사회정의를 연결시켜서 주장하는 의견들이 계속되어 왔다. 1982년 6월 29일에 조직된 “韓國基督敎敎會協會 統一問題研究所”나 基督敎 청년 학생 단체들도 이러한 立場을 취하였다.

이즈음 안병부교수는 「韓國統一問題의 성서적 조명」이라는 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 이북은 論議의 여지가 없고 民主主義를 표방한 남한에서도 統一은 언제나 政權主導, 아니 政權만의 독점물로 삼아왔던 것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民主主義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증거며 따라서 ‘민’에 의한 統一의 길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어디까지나 ‘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5)

문의환교수가 “씨울의 소리”에 기고한 論文가운데 선민주 후통일의 주장은 이러한 統一論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의 하나였다.

“民族統一이라는 民族史의 최대의 과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우선 진취해야 할 고지는 민주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註 25) 기장회보, 1981년 6월 1일.

선민주론자다.

.....

우리가 지향하는 民主化란 南과 北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고착시키는 것은 안된다. 그런 民主化는 韓國의 비극을 극복하는 運動이 아니라 비극을 심화시키는 運動이 되겠기 때문이다.” 26)

위에 論한대로 民主主義와 統一을 연결시켜 統一을 전개시켜가려는 國內의 基督教 統一論議의 분위기는 분명 KNCC의 2.29선언이 나오게 한 내적요인이었다. 이와 더불어 2.29선언이 나오게 했던 외적요인은 이 선언의 산파역을 맡았던 사람가운데 한사람인 김형태목사의 기고문 “한반도의 平和統一과 教會의 역할”(1985,6월호 基督教思想)에서 엿볼 수 있다.

1981,1982,1984년 3차에 걸쳐 “조국통일을 위한 北과 해외기독교 동포간의 對話”라는 모임을 北韓當局이 주최하여 가졌던바, 이 모임에서 北韓 최고인민회의 부회장의 연설, 최덕신, 최홍희의 축사등을 보면 순수한 基督教 모임이 아니었는데 이와같은 해외교포들의 산발적 움직임을 보면서 KNCC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의 問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교회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노력하였다고 한다.

KNCC의 2.29선언은 韓國基督教 특히 개신교의 北韓宣教 및 統一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2.29선언을 계기로 개신교의 전교단이 이 선언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立場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노정시켰다. KNCC에 가입한 6개교단(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기독교장로회, 기독교감리회,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가운데서 감리교와 기독교장로회측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立場을 취하고 KNCC의 선언을 교육을

註 26) ‘씨올의 소리’, 1978, 7·8월호

통하여 내면화시켜 가려는 전교단적 運動을 전개시켜 나아갔다. 기독교장로회는 산하 14개 노회들이 이 問題를 중심한 지역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들의 모임에서도 2.29, KNCC선언의 지지는 물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갔다. 기독교감리회 역시 KNCC의 선언이 있자 재빠르게 이를 교단적 立場에서 승인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平和教育問題를 다루었고, 이 교단산하의 도시목회자협의회는 여름수양회(1988.8.29~31)에서 “教會는 平和統一센터가 되어 한다”고 선언하였을 뿐아니라 “北韓 바로알기 성서연구”의 개설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지난 9월 13일~16일 서울에서 열렸던 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는 “KNCC총회시 북한대표초청, 89년 세계개혁교회연맹 22차 서울총회시 북한대표초청”안과 “평화통일지역 신도대회 개최”의 안 등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일대한기독교회총회는 “KNCC선언문을 적극 지지한다.”고 결의하기도 하였다.²⁷⁾ 이러한 KNCC의 선언의 정신과 일치하는 統一의 열기를 확산시켜 가려는 運動들이 기독교장로회 산하의 한국신학대학 교수들과 일부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KNCC의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敎會 宣言”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 보다 많다고 느껴진다. KNCC 가입 6개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는 산하에 있는 여러 노회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장로회 총회(1988.9월, 서울 소망교회)에서는 KNCC의 2.29선언을 더 研究하는 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유보하였다. KNCC의 2.29선언에 지지를

註 27) 크리스찬신문, 1988. 9.3일자, 9.10일자, 보도 참조

표시한 노회는 전북노회 한곳밖에 없었다. 또한 이 교단산하 장로들의 모임인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한영제)도 KNCC선언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반대이유를 요약해 보면,

① 선언문엔 성경을 신·인간의 구속사적인 정상적인 해설대신 民主化理論을 들어 政治的宗教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져 받아들일 수 없고

② KNCC는 6개교단협의체로 韓國基督教을 대표할 수 없음에도 韓國基督教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기만행위이고

③ 민중주도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바 민중은 여론의 조정자는 될 수 있으나 회담당사자는 될 수 없으며 이의 고수는 무정부주의를 낳을 우려가 있다.

④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채 南北韓을 동일시하고 있다.

⑤ 平和統一의 저해요인이 교회측에 있는 것 같이 호도(北엔 회담대표가 될 教會가 없다)

⑥ 北韓教會의 인정

⑦ 핵무기 철수를 논하고 있는데 핵무기는 南北韓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⑧ 平和統一問題를 구상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처럼 미화

⑨ 7.4 공동성명을 논하고 있으나 北에서 협약을 깨뜨리고 있고

⑩ 72회 총회가 결의한 바 미군철수 거론은 월권이다.²⁸⁾

이 問題에 대하여 이북에서 내려온 신도들과 이북노회들은 매우 민감하게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평양노회는 1988년 3월 22일, 23일에 있었던 모

註 28) 기독교보, 1988.4.6 일자

임에서 산하의 기획위원회와 북한선교위원회에 2.29 KNCC 선언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結果보고를 “KNCC 선언에 대한 평양노회의 결의”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KNCC 선언을 신앙적인 면에서, 理念的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조목조목 비판한 뒤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선언하고 있다.

“NCC 선언이 이상과 같이 신앙적인면, 이념적인면, 현실적인면에서 우리 평양노회원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노회는 본교단 총회가 NCC가 본래의 선교적 사명과 에큐메니즘의 위치에 설때까지 일체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헌의하기로 결의한다.”²⁹⁾

예수교장로회(통합)의 북한전도대책위원회(위원장 문학선)도 KNCC의 2.29 선언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수교장로회의 기관지인 기독교보는 그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KNCC는 본 교단을 비롯한 6개교단의 협의체에 불과할뿐, 결코 본교단의 상회가 아니다. 따라서 KNCC는 사전에 가맹교단의 인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결정 선포한 사항을 가맹교단에 명령할 권리가 없으며 가맹교단 역시 그것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³⁰⁾

KNCC의 2.29 선언에 대한 비판은 대한예수교장로회만의 問題로 그치지 않고 초교단적으로 개신교회의 평신도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 국민화합운동협의회 등 많은 단체들이 KNCC

註 29) 기독교보, 1988.6.25 광고란

30) 기독교보, 1988년 9월 3일자

의 2.29 선언에 반대하였다. KNCC에 가맹하지 않은 개신교교단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가맹교단 20개)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회(가맹교단 17개)도 KNCC의 2.29 선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KNCC의 2.29 선언을 지지하는 가입교단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내적으로統一되어 있지 않다. 한경직, 김종대, 조향록, 강신정, 김창인, 박종렬 등 개신교의 원로급 지도자 19명의 이름으로 “1천만 基督教 信徒들과 성직자 및 國民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6.25를 기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들 19명 가운데에는 基督教長老會의 증경총회장들과 감리교단증경감독들, 구세군전사령관도 들어있는데, 이 호소문은 KNCC의 2.29 선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KNCC의 2.29 선언을 계기로 韓國統一問題를 중심으로 개신교회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진 셈이다.

KNCC의 2.29 선언이후 이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많이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基督教동문회 주최 「民族統一과 韓國基督教」 토론회에서는 KNCC 선언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학자들이 토론을 전개한 일이 있고, KNCC 선언을 비판하는 학술심포지움이 총신대학부설 韓國教會問題研究所가 주최하여 “분단상황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나학진교수(서울대)는 KNCC 선언문의 비판적인 약점으로 서 다음 몇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① 객관적인 立場을 취하려는 태도가 지나쳐, 분단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② 6.25 전쟁에서 南北韓이 모두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상대적인 차이는 무시되고 있다.

③ KAL기의 폭파 등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로 보아 신뢰성의 회복이

쉬울지?

④ 平和協定の 체결 그리고 군비감축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
을 불식할 수가 없다.

⑤ 핵무기철거, 미군철수 등도 온건한 현실주의에 토대된 ‘힘의 균형’
이라는 立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⑥ 北韓에 國家에 의해 위장되지 않은 기독교신자나 基督教團體가 얼
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⑦ 1995년을 “平和와 統一의 禧年”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社會主義를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⑧ 민중신학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 민중통일론인데 온건한 신
앙의 立場은 분명히 아니다.

⑨ 韓國의 教會를 대표할 수 있는 선언문이 아니다.

⑩ 國內問題에서는 正義를 강조하면서 화해(사랑)에 대해 언급하지 않
는 반면 北韓과의 問題에 있어서는 正義를 후퇴시키며 화해(사랑)을 앞
세우는데 이것은 크나큰 신학적 약점이다.

KNCC선언문제를 둘러싼 統一논쟁을 전후하여 고개를 들고 있는 신학적
論議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맑스주의와 基督教이다. 1988년 11월 15일~
16일 숭실대학교 基督教社會研究所 주최로 열린 平和統一學術심포지움의
대주제가 “맑스주의와 基督教思想”이었는데 맑스주의와 基督教의 비판적
관계, 에른스트블로흐의 소개, 폴 텔리히의 基督教社會主義 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論議들은 基督教과 社會主義가 공존하는 동구라파적 현실등을 소개
하고 여러가지 理念들이 공존하는 시대에의 적응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비판적 論議들이 시작되어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자들

이나 基督教社會主義者들의 본질과 그것이 차지하는 教會史的 및 구라파의 社會史的 위치를 분명히 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들 問題들에 대하여 참다운 인식에 도달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民族統一과 基督教의 주제밑에 미국선교사에 의한 基督教 전개를 서양자본주의의 팽창과 연계시켜³¹⁾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관한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運動의 진행추이도 주목되어진다.

註 31) 박순경, 韓國民族과 基督教의 問題, 基督教思想, 1985년 1월호.

6. 改新教 統一論議의 神學的 背景

KNCC 2.29 선언을 계기로 기독교계의 統一運動 路線이 크게 틀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현실적인 問題에 대한 觀點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나,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神學的 立場의 차이에 연유하고 있음을 본다. 11월 25일 스위스 클리온에서 있었던 “한반도 平和와 統一을 위한 클리온 선언” 채택후 귀국한 KNCC의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강문규씨('74년부터 KNCC 국제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YMCA聯盟 사부총장)의 “개인차원의 영적구원은 이미 낡은 신학의 방법으로, 현 한반도 상황을 인식한 宣敎神學, 統一神學의 차원에서 統一을 지향한 선언문이 되도록 애썼다.”¹⁾는 발언은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KNCC의 統一運動은 “개인차원의 영적 구원”이라는 “낡은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사회복음”(Social Gospel)이라는 신학운동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신학운동이 시작되었다. 영국의 基督教社會主義 그리고 불란서의 카톨릭社會運動, 스위스의 基督教社會主義 등에 내용적으로 상통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社會問題의 발생과 미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淸교도적 정신 등이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토양위에서 배합된 것이 바로 사회복음주의였다.²⁾ 사회복음주의자들

註 1) · 일요신문, 1988.12월 11일.

· 노익신, 내가 보고온 북녘땅<대담>, 분단을 뛰어넘어 양은식편저 p. 336 참조.

· 양은식도 北과 南의 공통신학으로써 민중신학을 언급하였다.

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늘 큰 관심이었으며 특히 역사적 예수의 社會的 태도에서 사적, 공적인 삶의 지침을 도출하여 내려고 하였다. 이들의 몇가지 요소들은 차라리 계몽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특히 이들의 ‘인간은 본질상 선하다’는 인간이해나 ‘오직 인간들이 그들의 선한의지를 실현시키려고 努力할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다’는 기본 명제들이 그러하며 인간의 이기주의의 극복과 社會的行爲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은 教育에 기인한다고 보는 教育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나 진보에 대한 믿음 등은 유평파적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복음주의란 위에서 언급한대로 미국의 산업화와 이로 인한 社會問題의 발생 그리고 당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특히 미국에서 일어난 무디의 신앙각성운동 등이 社會的 問題 解決에 基督教倫理에 입각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발로 생겨진 운동이었다. 이 사회복음주의운동은 이것이 발생할 당시 부터 한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³⁾ 첫째는 급진적 社會的 성격의 것이며, 둘째는 보수적 사회복음운동이며, 셋째는 진보적 사회복음운동이다.

첫번째 부류는 개인의 삶의 수준과 교양수준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데 이 運動의 지도자의 하나인 헤른(G.D.Herron)이나

註2) Schrey, H.H.: "Sozial Gospel", in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3. Aufl. 1963, VI. Bd. S. 112f.

3) · Evangelische Soziallexikon, Kreuz Verlag, 1980, S. 1140.

·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J.C.B. Mol Verlag, 1962, S. 114.

워드(H.F. Ward), 다비스(J. Davis) 등은 마르크스주의와 基督敎의
변증법적 융합을 시도하였고 社會主義的 平和主義를 지향하였다.

둘째의 보수적 사회복음운동은 개인의 삶과 교양의 개선에만 목표를 두
고 있다.

세계의 진보적 사회복음은 社會에서의 개인적·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을 뿐아니라 社會的 變化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동일시하였다.

이들의 예수상은 위에 말한대로 역사적 예수 그리고 사회개혁자 예수였
다. 이 運動이 보수주의적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한때 미국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사회복음의 최대 신학자 라우센부쉬(Rauschenbusch)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널리 소개되었다.

1930 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내에 政治的 現實主義가 등장하면서 이상주
의적이며 유토피아주의적인 요소들이 퇴조하게 되었다. 라인홀드 니버와 같
은 신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基督人들의 社會的 責任은 강조하나 사회복음
주의의 낙관주의적이고 유토피아적 요인을 거부하고 인간을 죄인으로 고백
하는 신학운동이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복음주의적 立場에서 보는 선교의 개념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되심
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간들의 사죄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간증하는 것을 넘어선다. 차라리 사회개혁자 예수를 따라 개혁을 위해 헌
신하는 것을 이념이다. 사회복음주의적 유산이 오늘날의 에큐메니칼운동⁴⁾
의 社會參與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KNCC의 2.29 선언을 반대하고 있는 교단들은 대부분

註 4) WCC 運動의 내용이 에큐메니칼 運動이다.

복음주의적 立場을 취하고 있음을 본다.

“인간은 죄인이요 따라서 인간자체 만으로는 절망적 존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사죄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전통적 신앙고백을 계승하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전해준 복음의 진파를 선교로 보는 立場이다. 이들에게도 社會的 관심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독일의 경우 18,19세기의 계몽주의적 사조와 대결하여 싸운것은 바로 경건주의 혹은 신앙각성운동으로 표현되는 복음주의적 立場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불구자들, 소외당한 수공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해 힘썼으며 이를 위해 Innere Mission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른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의 基督教社會運動은 복음주의적 立場의 사람들에게 의한 것이다.⁵⁾

南北統一 자체를 선교자체로 보려는 사회복음적 立場과 南北統一을 선교를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보려는 보수적이요 복음주의적 立場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KNCC의 2.29선언이 나누어 놓은 韓國教會의 판도는 신학적인 요인 하나만으로 설명한다면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차이가 가장 큰 근원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겠다.

註 5) 유은상: 19세기 독일 개신교 社會運動研究, 서울여대논문집, 1985.

7. 結 論 : 基 督 教 統 一 運 動 方 向

가. 展 望

앞으로 基督教의 統一運動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南韓의 基督教의 급속한 성장과 인적·물질 자원의 동원능력, 여기에 높은 선교적 사명감의 구미, 또한 北韓側의 南韓 基督教와의 접촉 필요성의 증대는 南北基督教의 만남의 폭을 점점 넓혀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北韓은 그들의 본래의 의도가 어떠한지 간에 南北基督教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남한내의 제일 큰 조직된 적대세력인 基督教을 둘로 나누어 놓았고, 특히 KNCC의 선언이나 클리온선언 등은 南韓내의 정부비관세력들이 주도하는 統一運動의 열기에 기름을 더하는 효과를 어느정도 거둘수가 있었다.

그러나 교류는 만나는 양쪽을 변화시킨다는 경험적 사실은 폐쇄적 北韓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 있다. 클리온선언에서 선정치직해결, 후종교직교류를 못박았지만 그들이 요구했다는 基督教서적들, 그리고 카세트테이프 등의 교류라도 이루어지는 경우 北韓에 일어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요즈음 KNCC의 統一論議를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의 마르크스 제해석의 시도와 基督教을 이해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소개, 基督教社會主義로 지칭되는 運動들을 계몽하려는 제반노력들이 시도되고 있고 과거의 미국선교사들의 선교와 제국주의를 연결시키려는 글들이 발표되고 있는바, 이것들은 좌경적 民族主義의 열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KNCC의 南北접촉은 KNCC의 統一案을 반대하는 여러교단들을 統一問題에 관한 한 하나로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였고 앞으로도 基督敎的 統一運動에 비상한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서 基督敎의 社會的 관심, 즉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경주케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KNCC의 가맹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 예수교장로회(통합)의 KNCC 2.29선언을 거부하는, 지난 9월총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KNCC를 중심한 통일노력이 균형있게 재조정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겠다.

KNCC의 2.29선언이나 글리온선언에 나타난 미군의 철수문제, 민중통일론, 연방제통일을 암시하는 내용, 신정치적해결·후종교적교류 등의 問題 등이 냉철한 재검토를 거쳐서 손익계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이 運動의 양상이 다소 수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 基督人을 北韓은 끈질기게 이용하여 南韓의 基督敎界에 영향을 주려고 해왔는데 南北의 교류가 막히거나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南北의 만남 통로는 南韓의 基督敎 宣敎團體들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재미 감리교에서 北韓宣敎團體가 발족되고 있고 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중국 심양에 北韓宣敎를 위한 선교기지로서 교회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바, 미주의 교포들은 물론이요 중국 연변동지의 基督敎人 교포들이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극동방송, 아세아방송등이 중국대륙의 基督敎人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송매체들이 앞으로도 크게 南北基督敎人

의 중간 역할을 할 것이다. 방송매체는 전달방법이 일방적인데 약점이 있으나 基督教徒聯盟에 가입하지 않은 지하교회와도 연결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統一된 지도밑에 있는 카톨릭教會의 統一運動은 균형있는 정체성을 잔지켜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로마교황청의 北韓當局과의 교섭의 성과에 따라 北韓內 선교활동의 최소한도의 영역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들의 일관성있는 南北만남의 努力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개신교에 비해 비교적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基督教 眞理의 초월성을 내세워 基督教가 南北의 중간에 위치한 듯한 자세, 다시말해서 南도 北도 아닌 “제3의 길” 등이 일부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論議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論議들이 教會속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바, 우리 政府當局의 統一努力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몇가지 제안들

① 기독교계의 統一運動들이 政府當局의 統一努力과 상호협력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는 政府는 도덕성의 회복, 民主化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② 효과적인 基督敎的 統一運動을 위하여는 韓國教會의 회개와 갱신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③ 基督敎의 統一運動이 이성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北韓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제공등을 통하여 北韓의 실상을 바로 알게 하여야 한다.

④ 요즈음 새로이 論議되기 시작한 좌파적 基督教思想이나 運動 등은 그것이 차지한 教會史的 위치를 밝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에 도달하도록 토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KNCC의 統一論議 가운데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난 政治的 事項에 관한 것들은 이것들이 갖는 정기능과 역기능의 손익계산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교계에서 뿐 아니라 社會에서도 이루어져서 일정한 여과를 통하여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⑥ 효율적인 統一運動展開를 위하여 모든 교단들이 유기체적 연계속에서 일관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정해 가야 한다.

⑦ KNCC에 속해있지 않은 교단들이나 선교단체들도 北韓에 있는 基督人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야 한다. 이들의 선교적 열정, 인적·물적자원 등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어 개발되고 쓰일 경우 기독교계의 統一運動에 새 면모를 주게될 것이다.

⑧ 신학교에 北韓宣敎와 건전한 統一運動을 위한 北韓學등의 과목이 개설되고 敎育을 위한 敎재들이 개발되고, 基督教統一研究所 등을 만들어 스스로 研究하고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해감이 바람직하다.

南北對話時代の
佛教界 統一運動 方向

共同研究責任：韓 相 範

(東國大, 法學)

延 基 榮

(東國大, 法學)

차 례

1 . 佛敎界의 統一論議・運動의 性格과 意義	89
(1) 韓國社會에 있어서 佛敎와 民族文化	89
(2) 宗敎運動으로서 佛敎界의 統一論議와 運動	80
2 . 佛敎界의 統一論議・運動의 現況과 北韓의 宗敎界	92
(1) 佛敎界의 統一運動의 現段階	92
(2) 北韓의 佛敎界와 그 問題들	105
(3) 韓國 佛敎界의 統一論議・運動의 論理와 方向	114
3 . 南北交流와 韓國 佛敎界의 統一運動의 座標	117
(1) 佛敎 各 宗團의 協議機構 構成	117
(2) 團體・聖職者・信徒 등 人士交流의 推進	117
(3) 南北 佛敎徒 共同法會	118
(4) 北쪽측의 信徒에게 佛敎聖典보내기運動	118
(5) 南北 佛敎聖地 巡禮	118
(6) 南北間 佛敎研究物 交換과 세미나 開催 및 佛敎遺蹟 調査를 위한 共同學術活動	119
(7) 民間主導 統一運動과 政府主導 統一運動의 相關關係	119
結論 —바람직한 統一運動으로서 佛敎界 統一運動을 위하여—	122

1. 佛敎界의 統一論議 · 運動의 性格과 意義

(1) 韓國社會에 있어서 佛敎와 民族文化

宗教面에서 볼때에 韓國社會는 多宗教社會이다. 전통종교라고 할 土着信仰을 비롯해서 儒敎 · 佛敎와 근세에 전래된 基督教가 共存하는 社會이다. 각 종교도 내부사정을 보면 각 宗派別로 併存하고 있다. 이러한 多宗教社會에서 각기 다른 宗教가 우리 민족의 信仰으로서 정착되는 것은 우리 민족문화라고 하는 틀속에서 融和됐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統一問題를 論議할 때에 民族이라고 하는 概念을 基本軸으로 해서 문제를 提起한다. 그러면 民族이란 무엇이고 그와 韓國宗教와의 關係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야 한다. 먼저 民族이란 言語나 風習 및 그 밖에 生活樣式의 공통성을 特徵으로 하는 歷史적으로 이어져 오는 共同體이다. 이 共同體라고 하는 概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文化的인 同質性이다. 여기서 우리가 韓國의 宗教를 두고 말할 때에 韓國의 각 종교는 世界宗教로서의 보편성과 함께 民族宗教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外來宗教이고 우리의 民族文化의 한 틀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民族宗教라고 하긴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韓國의 宗教는 그러한 文化的 同質性에서 각 종교가 하나의 民族宗教로서의 위치를 지니게 된다.

佛敎를 말할때에 우리가 韓國의 佛敎를 말하고 그것은 韓國民族의 文化에 속하는 것으로서 文化的 同質性 속에서 韓國의 佛敎로서 規定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韓國의 宗教는 어느 종교나 이 韓國社會의 韓國민족이라고 하는 構成員의 문제들을 두고 宗教로서 나름대로의 解答을 提示해야 한다.

民族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形成되어 이어오는 運命共同體의 構成員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서 宗教로서의 자기 役割을 해 나가야 한다. 지금 分斷의 문제도 南과 北의 民族構成員의 文化的 同質性의 회복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問題가 提起된다.

(2) 宗教運動으로서 佛敎界의 統一論議와 運動

우리가 分斷을 克服하고자 하는 運動은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各界에서 展開되어 오고 있다. 佛敎界의 統一運動은 위의 범주에 비추어 볼 때 구태어 그 位置를 規定하면 文化運動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특히 불교가 소수령 2년(372년)에 이 땅에 들어온 이래 그것은 우리의 文化로서 民族文化의 發展에 이바지 해 왔다. 따라서 우리 民族文化 遺産에는 佛敎的인 것이 많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遺産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오고 있다. 이 점은 불교라고 하는 한정된 범주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民族文化라고 하는 次元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佛敎界가 통일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佛敎 本來의 생명의 아낌(아힘사:不殺生·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民族文化의 동질성을 다져가면서 南과 北의 겨레가 불신과 증오를 씻고 信賴와 이해를 회복해 나가면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일에 힘써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 본래의 운동의 바탕으로서 그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으로 發揮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佛敎徒도 市民으로서 政治運動도 하고 다른 입장에서 統一運動에 參與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운동이라고 하는 基本立場에서의 佛敎界의 統一論議·運動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게 된다고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그러한 佛敎界의 統一問題에의 접근과 운동은 우리의 政治社會의 現實을 초월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佛敎는 韓國社會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韓國社會의 狀況에 따라 規定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선 韓國社會의 民主化라고 하는 기반조성과 나아가서 북쪽 社會까지 包畵한 民主化의 기반조성이란 조건과 불가분의 關係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이 말은 무엇보다 佛敎界 自體가 民主化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도 된다.

2. 佛敎界의 統一論議・運動의 現況과 北韓의 宗敎界

(1) 佛敎系의 統一運動의 現段階

民間次元에서 統一論議・運動이 제기된 것은 4.19 革命以後의 일이다. 당시에 자유당 정권하에서의 北進反共統一論의 벽이 무너지게 됨에 따라 各政黨・社會團體 및 學生들에 의한 統一運動이 高潮되었다. 당시의 執權黨이던 民主黨조차도 유엔 감시하의 南北總選舉라고 하는 구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革新系가 주도하는 統一運動은 새로운 전기를 잡는 듯 하였다.

그러나 5.16 軍事政變은 집권한 군부 일부가 “反共을 國是의 제 1”로 제시하고 나오면서 統一運動을 容共으로 단죄하였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지어도 民間次元에서는 冬眠期에 들어서게 되었다. 당시의 軍事政權으로서 는 민간차원의 平和的 統一構想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북쪽 측은 休戰以後 꾸준히 평화통일 공세를 가해 오고 있는 實情이었다.

그런데 反共을 국사의 제 1로 삼던 박정희 政權이 72년에 들어서면서 內외의 情勢變化에 對應하듯이 이른바 「7.4 南北共同聲明」을 냄으로써 統一論議에서 새로운 전기가 이룩되게 되었다. 비록 政府主尊의 統一論議이고 構想이며 對應이었지만 종전의 統一論議에서 한 段階 넘어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實際로 「7.4 南北共同聲明」後의 事態의 進展을 보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實際로 80年代 後半에 오면서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가운데서 宗敎界의 운동을 살펴 보긴데 이미 종교계가 각 團體나 研究所 또는 서클單位の 모임이나 學生・宗敎團體에서

종교적인 觀點에서의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성숙되어 왔다. 특히 學生運動圈의 구호는 통일=분단극복의 문제에 이미 집중적으로 초점이 모아져 왔고 그러한 운동의 구체적인 표출은 88年 8月 15日 南北大行進으로 나타나게 된것을 본다. 이러한各界의 運動은 反政府運動이나 民權運動과 불가분의 連繫속에서 進行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물교계로서는 급작스럽게 닥치는 事態에 대하여 對應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듯하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대두되는 民族自主統一佛敎運動協議會를 비롯하여 各種 佛敎團體 및 研究所 單位의 통일운동이 세미나와 實踐運動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佛敎系 各界의 主張과 運動狀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民族和合 共同올림픽推進 佛敎本部, 民族自主統一佛敎運動協議會

민족의 자주적 통일에의 대서원을 지니던 재야불교단체들이 88年 5月 13日 準備委員會를 구성하고 5月 29日에 “民族和合 共同올림픽推進 佛敎本部(이하 佛本)”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佛敎淨土具現 全國승가회, 중앙승가대학학생회,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 조계사 청년회, 동국대학교 불교도연합, 동국대학교 석림회, 정토구현 광주불교협의회, 서울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대한밀교청년회등 10개 佛敎團體가 代表로 參加하였다.

佛本準備委員會는 “第 24回 國際올림픽大會에 대한 愛國佛敎徒의 立場”를 통해 “우리 불교도는 民族統一을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해 統一올림픽, 平和올림픽, 民主올림픽의 開催를 기원한다”고 천명하였다. 5月 29日에는 東國大 강당에서 “佛本結成大會 및 汎佛敎徒 서명운동 말대식”을 가졌다. 여기서 愛國佛者들이 民族統一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자”는 내용의 創立趣旨文 發表와 I.O.C 에 보내는 공개서한의 朗讀, 그리고 汎佛

교徒 서명운동 취지문 朗讀이 있었고, 이어서 記念講演이 있었다.

6月 12日에는 개운사에서 약 500여명의 佛者들이 모인 가운데 “祖國의 자주적 統一을 위한 共同올림픽 記念法會”가 열렸다. 民族解放, 民主化를 위해 산화한 열사 영가천도를 시작으로 월운스님의 “왜 統一이 되어야 하는가”하는 主題의 “분단을 넘어 정토의 세계로”라는 擘문과 고은씨의 “우리는 어떻게 統一로 나아갈 것인가”하는 강연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일은 이날 공동대표의 명의로 “朝鮮佛敎徒聯盟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採擇한 일이다. 共同올림픽의 성사를 위해 南·北佛者의 力量을 結集하고, 同族間의 대결의식을 克服하여 南北佛敎間의 自主的 交流의 門을 열며 오는 8月 15日에 朝鮮佛敎徒聯盟과 佛本이 主催가 되어 보현사와 조계사에서 각각 “祖國의 自主的 統一을 위한 南北佛者共同祈願法會”를 開催할 것을 提案하였다.

“統一에의 科學的 認識을 다진다”는 취지하에 “統一學校”를 開講(6月 28日 - 7月 8日)하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1백여명의 佛者들이 모여 성황리에 마쳤다. 대부분의 직장인들로 20代의 靑年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男女의 比率은 반반이었다. 政治, 文化, 經濟, 美國의 本質, 核問題, 올림픽과 統一등의 다채로운 內容으로 짜여져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가운데 進行되었다.

國際情勢에 관한 講演을 맡았던 장을병 教授는 “내가 講演을 많이 다녔어도 이렇게 정숙하고 진지한 敎育生은 처음”이라며 칭찬이 대단하였고, 빠짐없이 敎育에 同參한 수강생들은 대부분 “統一에 새롭게 눈뜨는 계기였다”고 말했으며, “시야가 폭이나 넓어진 뿌듯함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날은 “民族統一과 青年佛敎徒의 役割”에 관한 討論이 活潑하게 進行되었는데 參席者들은 그동안 반공일색의 制度敎育을 통해 받아온 北韓에 대한 이질감을 어느정도 克服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토요일이었던 다음날 오후에는 核問題를 다룬 슬라이드 및 비디오를 상연하였으며 우중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觀光버스로 임진각을 다녀와 統一에의 의지를 다졌고 “統一學校”수강을 계기로 일회적인 모임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實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佛本에서는 앞으로도 統一學校의 內容을 보다 다양하게 채워 꾸준히 講座를 進行할 예정이며, 부산, 광주등지에도 地域統一學校를 開設할 計劃이다. 이 밖에도 佛本에서는 “統一念願 汎國民 平和大行進 推進委員會”에서 主催한 統一綜合文化祭(7.2), 임진각 統一祈願祭(7.3), 統一念願 汎國民 平和大行進(7.4)에 同參하여 愛國佛者로서 自主的 統一의 밑거음이 될 것을 기약하기도 하였다.

한편 佛者들의 統一意志를 鼓吹시키기 위해 “分斷을 뛰어넘어 정토의 세계로”라는 소책자를 발간해 佛敎系의 統一論을 資料로 整理하였다.

이들 佛本의 團體를 中心으로 88年11月14日에는 同本部를 發展的으로 解體하여 12月4日 民族自主統一佛敎運動協議會(의장: 지선)를 結成했다. 여기에는 불교정토구현승가회, 중앙승가대학학생회, 대한불교청년회, 서울불교청년회등 13개 단체가 參加했다. 이날 모임에서 參席團體들은 (1) 統佛協을 中心으로 굳게 團結한다. (2)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용맹정진한다. (3) 佛敎를 革新하여 歷史發展에 同參한다. (4) 民主, 統一된 불국정토를 건설한다. 等 4 個項을 統佛協 4大綱領으로 採擇했다.

삼귀의 반야심경, 民族自主와 통일보살에 대한 묵념순으로 進行된 이날 결

성대회에서 의장 지선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은 민족사주세력이 外勢와 내국세력의 힘을 능가할 때 可能하다”고 전제하고 “分斷祖國의 모순을 解決하지 않고는 어떠한 포교도 형식에 불과한 論理로 떨어질 危險이 있다”고 말했다.

정토구현 광주佛敎協議會 會長 범성스님은 발족선언문에서 “오욕과 굴종의 歷史를 克服하고 참 자유와 평등의 統一祖國을 만들기 위해 이 땅의 國民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強調하고 “祖國統一을 向한 모든 佛者의 念願을 모아 民族自主統一佛敎運動協議會를 결성한다”고 宣言했다.

이어 東國大 석림회장 유정스님은 “愛國佛敎徒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人間의 尊嚴性이 깃뻛히고 있는 이 땅 民衆의 고통은 바로 보살도를 구현하는 불교도의 아픔임을 자각하자”고 말하고 “統佛協은 佛敎徒에게 부과된 민족사적 과제를 받아들여 이땅의 佛者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발원문 朗讀, 시흥서원을 끝으로 결성대회를 마친 뒤 이날 參席한 團體들은 2部順序로 다과회를 갖고 統佛協의 發展的 展望에 대해 意見을 交換했다.

이날 통불협 결성식에는 안순진씨(전국여성연합회 회장), 이재오씨(서울민중연합회장)등도 參席했다.

나) 佛本에 參與하는 中心團體의 現況

① 佛敎淨土具現 전국승가회

불타의 가르침을 實踐하는 승가로서 民族宗教로서의 佛敎役割을 계승·發展시키고자 하는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會長:청화, 이하 淨土)는 自體內 組織力은 未洽한 現實이지만, 스님들의 個別的 努力속에서 先進的인

성직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佛本의 共同代表 4명가운데 정토의 지선, 법성 두 스님이 들어가 있다.

佛本을 통한 活動 以外에도 지난 5月20日에는 정토스님 123명의 명의로 “民族和合 南北올림픽 開催에 관한 愛國僧伽의 立場”을 發表하며 “和合의 共同올림픽, 모든 양심수 석방, 반전반핵, 반외세 자주화”를 促求하였다.

또한 정토의 理念, 實踐方案等を 討論하며 고은씨의 民族統一에 관한 講演과 統一에 관한 토론도 가졌다. 이를 기점으로 地域別 民族統一과 佛敎改革에 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僧伽大衆의 認識을 提高할 方針이라고 한다.

② 大韓密敎青年會

統一이란 “祖國의 무명을 걷어내려는 신행공동체적 정진”이라고 정의하는 大韓密敎青年會(會長:전연대, 이하 密靑)는 佛本이라는 最初의 대외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내고 있다. 진각종의 根本精神인 이원 자주적 입장에 근거해 대내적으로는 종단의 체질을 개혁하고, 대외적으로는 佛本活動에 積極 參與함을 課題로 삼고 있다. 統一에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조심스럽게 反應하는 會員들 사이의 認識의 gap을 좁혀나가는 多樣한 計劃도 實踐할 것이다.

現代화된 密靑의 정예화된 組織力을 바탕으로 健康한 모습의 統一運動을 펼치려 한다며 密靑 副會長 박희택씨는 “佛敎界의 진보적 統一運動에 密靑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나약한 佛敎만을 알고 있던 밀청인 다수의 안목을 넓혀준 劃期的인 契機인 同時에 일당 백의 役割을 擔當하는 밀청인의 活動力을 對外에 과시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強調한다.

佛敎의 自主化, 祖國의 自主化를 統一에의 관건으로 보는 密靑은 지난

8月8日부터 11日까지 全國의 6個支部 32個 支會가 參席한 가운데 總조의 초전법륜지인 경북 영일군에서 “나는 밀청의 뜻대로 세상을 노래하네”라는 주제하에 하기 수련대회를 開催하였다. 이 過程에 統一講座를 插入하였다. 이와함께 言論媒體를 통한 弘報로서 4分期마다 發刊되는 會誌 “진여”에 統一問題를 展開해 나갈 計劃이다.

③ 韓國大學生 佛敎聯合會

統一指向의 觀點에서 88년 事業을 펼쳐온 韓國大學生 佛敎聯合會(會長:이영철, 이하 大佛聯)는 韓國基督青年協議會, 서울대 교구 카톨릭大學生聯合會, 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등의 團體와 함께 지난 5月14日 “全國民的 統一論議 保障을 위한 對政府 公開書翰”을 發表하였다. 여기서는 온 民族에게 公開되는 統一論議, 反共國是撤廢, 國家保安法과 社會安全法廢止, 安企部·保安司 撤廢 등을 促求하였다. 民統聯等 在野團體와 宗教部門 青年團體와 연대해 “共同올림픽으로 祖國統一의 새날을!”이란 전단을 다량 배포하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全北 金堤에서 農村活動을 展開 하면서 農民들과 함께 統一問題에 關係 活潑한 討論을 벌였으며, 大佛聯 서울지부 主催로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라는 主題를 갖고 法會를 열었다.

大佛聯은 統一과 分斷狀況을 主題로 한 세미나, 文化프로그램등을 準備하고 있으며, 統一問題에 關係 認識을 高揚해 民族自主의 觀點에서 民族大團結原則을 견지하는 努力을 展開함으로써 佛敎青年大衆을 보다 폭넓게 수용한다는 立場으로 活動하고 있다.

④ 서울佛敎青年會

그간 歪曲되어진 歷史를 回復하고 民族自主精神을 함양하기 위해 各

種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活動을 展開해 온 서울佛敎靑年會(會長:배영진, 이하 서울佛靑)는 서울地域靑年會와 信徒들의 佛本參加를 積極 誘導해 왔다. 歷史的 展進에 同參해 先導的인 물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立場에서 會員 個人的 不足한 統一에의 認識을 轉換시키는데 注力하고 있다. 最近들어 統一努力을 具體化하는 實質的 新行활동임을 느껴 積極的으로 統一問題를 사교하는 會員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敎理와 信行을 重點으로 여래의 젊은 사도로서 使命을 다한다는 趣旨로 3個月 研修敎育을 實施하였다. 約 50餘名の 會員이 88年 6月 25日부터 1週 4講座를 공부하며 佛敎에의 認識을 深化시키는 가운데 “佛敎의 民族에 대한 影響과 業績”, “올림픽과 統一論” 등의 內容으로 進行되었다. 불타의 가르침에 입각해 統一事業을 앞당기는 努力을 持續的으로 展開해 단군의 子孫으로서 統一事業에 一翼을 擔當하는 靑年精銳化 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⑤ 大韓佛敎靑年會 서울地區

大韓佛敎靑年會가 소수 명망가들의 자리다툼으로 解體된 狀況속에서도 大韓佛敎靑年會 서울地區(地區長:이성주)는 法會 예불시에 항시 “統一”을 기원하며 산하의 20個 사찰靑년회의 統一에 대한 關心을 모으는 努力부터 展開하였다.

⑥ 조계사 靑년회

지난 5月 “統一祈願 徒步大行進”을 開催해 봉일천에서 임진각까지의 32km를 약 3백여 명의 회원들이 “統一노래”를 부르며 行군하였다. 또한 會員들은 서울佛靑等 몇개 佛敎靑年團體가 함께 벌이고 있는 만해학교를 통해 統一에의 立場을 보다 分明히 하려고 努力했다.

⑦ 大僧佛教僧伽會

1988年 봄에 새롭게 變身한 大僧佛教僧伽會(會長:송산, 이하 大僧)는 創立과 함께 構성한 理念, 制度, 人權, 勞動 등의 8個委員會에 統一問題委員會(委員長:종태)를 設置해 “韓半島의 平和와 民族統一에 대한 佛教의 집장정리”와 “佛教大衆의 統一에 대한 關心高揚”, “統一을 위한 實踐行”을 基本目標로 出帆하였다.

앞으로 統一問題研究會를 構成하고 各 團體와 統一問題에 대한 연대활동을 할 計劃이며 그동안 各種 統一關係資料를 蒐集하여 왔다.

佛本結成 즈음에 접촉을 試圖하였으나 蓄積되지 않는 大僧 自體의 力量問題로 追後를 기약하며, 現在는 獨者的인 統一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에 “祖國統一을 위한 대승보살의 다짐과 宣言”을 發表하여 “南北韓 올림픽 共同開催, 平和協定締結, 統一論議의 保障, 양심수 전원석방, 光州 眞實 밝힐 것” 등을 促求하였다. 한편, 88年 6月 10日의 月例 講演會에서는 “分斷狀況과 民族問題”를 主題로 김낙중씨의 講演을 통해 統一問題를 다루었으며 오는 8月 5日에는 강화도 전등사에서 民族의 和合과 平和統一을 祈願하는 “統一祈願 큰法會”를 가졌다.

이번 行事에서는 월주 큰스님(금산사 주지)의 “民族統一과 佛教徒의 役割”에 관한 법문과 統一祈願 놀이마당이 進行될 豫定이며 佛本의 8.15法會 提議를 積極 支持하면서 “南北離散家族 往來·交換, 佛教教理·역경사업의 共同研究, 法會形式 및 불사 共同推進” 등의 北韓에 보내는 메시지를 採擇하였다.

佛教의 力量, 民族力量을 키움으로써 統一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方法 속에서 佛教大衆의 統一意志를 高揚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長短期的 計劃속에서 科學的이고 現實的인 諸般 統一事業을 벌어나갈 방침이다.

다) 韓國佛教社會研究所

佛教와 社會問題에 對한 전문연구기관으로 '88年 4月에 발족한 韓國佛教社會研究所는 每月 月例發表會와 심포지움등을 통해 統一問題를 다루어 오고 있다.

특히, 7月 16日 열린 第3回 月例發表會에서는 ‘北韓의 佛教實態와 佛教의 統一運動’이라는 주제로 發表와 討論이 있었다.

한편, ‘民族統一의 展望과 現段階 韓國佛教의 方向’이라는 論題로 '88年 9月 10日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한상범(동국대 법과대)학장의 기조발제, 김세균(서울대 政治學), 도정일(慶熙大 英文學)教授의 第1部 主題發表와 討論, 임현영(歷史問題研究所)씨와 지선(佛教本部 共同代表)스님의 第2部 主題發表와 討論順으로 進行됐다.

討論은 각각의 主題에 대한 약정토론과 250名의 방청객들이 參與한 一般討論으로 나뉘어 進行됐다.

한상범교수는 ‘民族統一과 韓國佛教’란 主題의 기조발제에서 ‘우리 民族에게 1945년은 南北分斷의 시발이고 南北間 異質的 精神文化의 이식의 단초’라고 말하고, ‘統一이라는 民族의 至上課題에 이바지하기 위해 韓國佛教는 獻身的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韓半島 周邊情勢와 民族統一의 方向’이란 主題로 發表에 나선 김세균교수는 ‘80年 레이건政權 登場以後 美國이 주도했던 新冷戰의 世界秩序는 87年 12月의 美·蘇間 INF廢棄協定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데탕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의 신데탕트 국면은 美國의 軍備擴散 路線의 전면적 拋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특히 東아시아·太

平洋地域에서는 新冷戰의 기본구도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또한 韓半島에서 美國은 ‘대소진진기로서 的 남한’ 과 ‘두개의 韓國政
策’ 이라는 基本戰略을 견지하고 있으며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 要求에
대해 南北間 非政治・軍事面的 交流, 교차승인과 유엔同時加入이라는 南北分
斷 永久化方向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고 주장했다.

도정일교수는 ‘戰爭, 核, 公害問題와 佛教’란 主題發表를 통해 ‘佛
教의 社會的 實踐倫理로서 的 非暴力原則은 모든 戰爭을 반대할 뿐만 아니
라 이를 생성해 내는 모든 社會・政治・經濟的 暴力構造에도 반대하는 것’
이라며, ‘佛教는 南北韓間 政治軍事的 대결구조를 克服하기 위해 南北韓 相
互不可侵宣言, 軍備縮小, 일체의 核武器 철수등을 위해 努力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組國統一을 위한 민족동질성 회복방안에 대해 임현영씨는 ‘南北民
族間의 이질성이란 冷戰時代의 분단고착화가 만들어낸 非本質的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동질성 회복이란 이질성 가운데 제 3의 同質性을 創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存在하고 있는 同質性을 再確認하고 이질성을 추방하기
위해 「民族的인 양식」을 재발굴하는 것’이라고 規定했다.

‘民族統一과 韓國佛教의 方向’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선 지선스님
은 ‘民族構成員 대다수의 生存權과 政治的 諸權利가 「分斷」을 명분으로
제약・박탈당하고 있으며 民族의 意思와는 상관없는 美國의 世界戰略 속에서
불시에 戰爭狀態로 전변하여 民族全滅의 核戰爭危機에 놓여 있는 現實
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佛教는 現實社會의 ‘衆生’을 天地人의 절대 平等한
世上(淨土)으로 인도하는데 必要한 ‘人間의 地位와 役割’을 밝혀주고

있는 世界觀과 ‘行動의 影響은 새 역사를 創造할 원동력’이라는 實踐觀을 바탕으로 祖國과 民族의 統一과 自主化를 화두로 삼고 生活化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佛敎 內部的 非民主性, 봉건성등을 克服하고 民族統一의 至上課題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중파벌과 계파를 배격하고 사찰운영과 종단의 民主的 改革을 이루며 青年會, 學生會등 民族·民衆과 함께 살아 숨쉴수 있는 大衆實踐團體를 開發, 發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

그동안 佛本의 活動과 立場에 관하여 公式的인 반응이나 代案이 提示되지 못하던 조계종은 '88年 6月 11日 총무원장 주재로 열린 總務會議에서 조만간 가칭 ‘統一問題 特別委員會’를 宗團 常設機構로 設置하여 ‘統一에 對한 佛敎的 理念의 定立, 北韓의 佛敎情報와 資料蒐集, 北韓 佛敎徒와의 交流’등 佛本에서 제기한 問題들도 포괄한다는 內容을 檢討하였다.

總務院內의 統一에 대한 認識의 未洽, 종단내부의 宗團다툼등의 진통으로 인해 보다 進진된 統一論議의 活性化를 기대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나 하루속히 佛敎界의 廣範한 統一論議들을 적극 收斂해 集約된 統一運動을 展開해 나가야 할 것이 總務院에 요청된다고 하겠다.

마) 태고종 총무원의 입장

태고종 또한 스님들이 統一問題에 관해 個人的 關心은 있으나 종단 次元의 統一에 대해 原則이나 비전등을 결정할 바는 없다.

바) ‘南北 佛敎徒 交流推進委員會’ 結成

佛敎界의 多樣한 統一論議를 綜合收斂할 汎佛敎的 公式機構로 ‘南北 佛敎徒 交流推進委員會’가 '88年 11月 15日 결성됨으로써 南北佛敎徒 交流推進은

보다 실질적인 接近이 可能해질 展望이다. 특히 이 委員會에는 韓國佛敎界의 최고협의기구인 종단협의회를 비롯, 전국적인 산하조직을 갖고 있는 조계종 전국신도회, 靑年會, 女性會등 各급 團體代表들이 모두 參與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번 推進委의 결성은 ‘7.7宣言’등으로 統一論議의 문호가 어느정도 개방된데 따른 內容으로 풀이되지만, 비교적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佛敎界 指導者들이 佛敎圈內의 이러한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綜合하면서 실질적인 交流推進을 위해 責任있는 團體의 代表들로 구성된 기구가 必要하다는 인식기반위에서 “南北佛敎徒 交流推進委員會”는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구는 北韓佛敎의 실상에 대한 情報確認부터 시작해 學術交流, 南北佛敎聖地巡禮등 實質的이고 단계적인 交流를 推進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計劃은 推進委를 결성하면서 발표한 8개항의 事業計劃과 4개항의 對北提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韓國의 佛敎가, 그 歷史를 자랑하고 佛敎徒 人口의 양을 내세워도, 社會問題 특히 그 가운데서 統一運動에의 組織化나 代案의 提示는 지금으로서도 시도되는 것이고 問題의 提起段階에서 自己定立'을 하는 단계라고 본다. 이 과제는 民族問題를 統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佛敎가 宗教運動으로서 어떠한 좌표를 세워서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根本問題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획일적이고 통제된 韓國佛敎界의 統一運動의 발상이 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것으로서 統一運動의 宗教的·韓國佛敎的 기여는 있을 수 없다. 韓國佛敎라고 하는 공동의 장에서 그 근본원칙에 따른 좌표의 設定과 方向은 함께해야 하고 그에 바탕을 둔 運動의 方法으로서 대응은 각 종파단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그것이

하나로서 收斂되는 맥을 잡아가면서 함께서야 한다. 基督教은 이미 北쪽에 교회를 세우고 보조를 하며 人的交流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것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본다. 韓國의 佛敎는 國際會議나 南北佛敎團體의 交流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接觸과 交流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韓國佛敎의 각 종단, 각 종파는 개적으로 상호유대하여 統一問題에 대한 協議機構를 만들어야 한다. 그때 그때 벌어지는 일에 對應하는 일회용 對應策으로서는 嚴重한 민족적 과제인 分斷克服의 問題에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지금 佛敎界의 統一運動에 는 기성불교지도자층이나 종단이 지속적인 對策과 그를 위한 연구기구조차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統一이라고 하는 당위성만으로 佛敎가 統一에 이바지 하는 것은 아니다. 韓國佛敎로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을 구체화시키는 구상과 對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點에서 비추어 볼때 韓國의 불교계는 이제부터 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아주 시급한 일이다.

(2) 北韓의 佛敎界와 그 問題들

한때는 北쪽에 宗教가 團體나 敎團에 存立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의심해 왔다. 共產主義의 世界觀은 宗教를 否認하고 실제로 宗教를 彈壓했던 實例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25戰爭以後 북쪽측에 사원·사찰이나 敎會가 자유롭게 活動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어느 누구도 의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事情이 달라져서 북쪽에서도 교회당을 세우고 宗教人士를 交流하고 또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메세지도 내고 있고 종교지도자라고 하는 인사가 國際會議에도 얼굴을 내밀고 있다고 할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점도 問題로 삼고 있음을 본다.

北韓의 宗教狀況은 우리로서는 북쪽측이 閉鎖社會이니 만큼 잘 알지 못한다. 최근에 우리가 입수한 資料로서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우선 알아볼 수 있다. 北韓 佛教의 실태를 把握하기에는 정확한 자료나 情報등의 不在에 의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北韓과는 다른 體制와 制度속에 살면서 ‘주어진 자료나마 정확히 分析하여 있는 그대로 記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前提로 하며 이 글을 쓴다.

가) 佛教의 地位와 役割

북한의 불교는 우리민족과 오랜세월을 더불어 살아온 宗教로서의 地位를 갖고 있다. 그것은 북한에서 불교에 대한 指導나 改造試圖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탄압은 거의 없으며 타종교에서 빈번했던 反共鬭爭도 불교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 북한의 불교인들은 朝鮮佛教徒聯盟을 中心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佛教代表者는 최고주권기관인 最高人民會議에 참석하며 몇몇 스님들은 勞動黨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北韓 佛教(및 승려)의 사회적 역할은 政策的인 측면에서 民族文化遺産의 보존과 管理, 국내외 觀光客에 대한 사찰 소개 및 案内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승려들은 일상생활(사찰관리, 필요한 勞動)과 修行生活(예불, 수행)을 겸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 寺刹, 僧侶, 信徒의 現況

8.15 직후 우리나라에는 全國적으로 31개의 대본산과 1,200여개의 말사가 있었으며 그 중 9개의 본산과 400여개의 말사가 北韓地方에 있었다. 또 북한에 있는 승려수는 1,600여명, 신도수는 375,00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寺刹의 規模는 100명 이상의 僧侶가 修行하는 사찰은 보현사, 건봉사,

유점사, 귀주사, 석왕사등 5군데였으며, 그중 함남·함주에 있는 귀주사에는 신도의 수만도 15,000여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200여개 가량의 寺刹이 戰爭의 와중에서 破壞되었으며, 전후 북한정부의 사회주의정책이 推進·完了되어가면서 佛敎도 變化를 겪게된다. 그것은 특히 僧侶와 信徒의 수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1985년 북한을 방문한 日本 佛敎學者는 북한의 불교신도와 승려가 각각 10,000명, 300명, 사찰이 60여개라고 전했다(법보신문 1988.6.21). 또 지금 存在하는 寺刹은 조그만 암자라도 信徒가 있으며 신도들은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하며, 佛敎團體에서는 일반인을 對象으로 불교강습회를 開催하고 다수의 젊은이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寺刹遺蹟이나 文化財는 개성을 中心으로 한 황해도와 금강산등지에 널리 있고, 함경도와 개마고원 일부지역에도 사찰과 신도가 다수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외에도 佛敎關聯物인 불교서적들이 보관되어 있는 圖書館이 있다.

다) 僧侶의 모습과 生活

북한에 있는 승려들도 남한과 같이 비구승과 대처승이 區分되어 있는 듯하다. 日帝時代에 日本佛敎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대처승의 特徵과 傳統적인 비구승의 모습이 각각 存在하고 있는 것이 여러사람의 증언에 의해 確認되고 있다.

1985년 5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북한 방문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의 기사가 연재되었다. “개성 박연폭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는데 스님은 머리가 길고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가사장삼을 입고 손에는 단주를 들고 있었다. 또 그는 일본의 식민

지시대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출가하였으며 解放後에도 자신은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고 20년전에 결혼하여 지금은 스님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때 그 스님은 대처승의 용모와 生活條件을 갖추고 있다. 위 스님은 북한을 訪問하거나 월남한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證言되고 있다.

그러나 '88年5월에 北韓을 방문한 西獨 僑胞 조명훈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보현사에 있는 僧侶는 南韓의 승려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즉, 그가 도착했을 때 “두명의 僧侶가 여러 불상이 있는 법당에서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는 삭발을 하였고 복장은 가사장삼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승려한테서는 結婚與否는 確認할 수 없었으며, 두분의 승려이외에 다른 승려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라) 僧侶의 意識

루이제 린저가 보현사에서 만난 노스님은 불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佛敎는 ‘원래 우리나라에 계속 存在해 왔던 것’으로 美帝國主義 앞잡이 역할을 하여 박해를 받은 基督敎와는 다르며, 이 절에서 道를 닦기도 했던 유명한 愛國的 僧侶(서산대사)의 보살도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였다. 국가에서 民族의 遺産을 保存하고 그 댓가로 國家의 배려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社會적으로 볼 때 그것이 박물관 관리인처럼 被僱傭人으로 보여도 별로 개의치 않는듯이 보인다. 스님의 이런 모습은 社會적으로 맡겨진 일들에 대한 肯定과 北韓政權에 대한 信賴가 깔려있는 듯하다.

또 불교에서의 五戒중의 하나인 不殺生戒에 대하여 그 스님은 모든 殺

生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壓制者 밑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解放시킬 다른 방도가 없으면 暴力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弱者의 暴力을 正當化하고 暴力이 압박자와 피압박자를 해방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음을 認定하고 있다. 結論적으로 이 스님은 불교에 대한 상당한 애정과 民族意識, 衆生의 고통에 대한 同參과 해방에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이외에도 僧侶意識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1985년 요미우리신문에 연재된 北韓僧侶와의 인터뷰기사가 있는데, 그 僧侶는 “南朝鮮의 佛敎徒와 만날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우며 한시빨리 南北統一이 되도록 부처님께 기도드린다”고 얘기하고 있다.

마) 北韓住民의 佛敎에 대한 認識

일반적으로 北韓住民들이 불교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은 듯하며 단지 불교에 대한 內容이나 이야기 등은 歷史敎科書를 통하거나, 가끔씩 있는 관광이나 休養生活 또는 박물관 관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일반대중이 불교에 대한 강한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스님을 접할 기회도 드문 듯하다. 그러나 1983年 越南한 이웅평씨는 “北韓에 있을때 서산대사같은 스님은 임진왜란때 나라를 위해 싸운 愛國的인 스님이라고 들었다”고 證言한 것을 볼 때, 北韓住民들이 佛敎, 스님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일반인들의 교리에 대한 理解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불교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바) 佛敎信仰儀式

北韓의 佛敎儀式은 남한과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즉 북에 있는

스님들도 법당에 불상을 모시고 ‘에불과 엽불’을 하며, 이 때 ‘복탁과 엽주를 사용’한다. 불상앞에는 촛불이 켜 있고 향을 피운다. 또 독경(천수경)을 하며 법회를 열고 법회시에는 선승이 부처님의 平等, 平和 理 念등에 관한 설법을 한다. 그러나 北韓의 선승이 선을 修行의 方便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수행승이 存在하며 佛教信者들이 일년에 몇번씩은 절에 와 쌀이나 돈을 시주하며 불공을 드린다. 또 불교신자들은 公式的인 佛教行事時에 “불기인호”를 사용하고 있다.

사) 佛教文化財의 保存管理

民族主體性을 강조하는 北韓에서 민족적 유산과 문화재에 대한 保存 意識은 대단하다. 文化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佛教文化財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戰時에 破壞된 많은 文化財와 建物을 복구하고 損傷된 것들을 원형대로 維持·保存하는 한편 獨創的인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가치있는 것을 繼承하는 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關聯한 最近의 것들을 보면, ① 80년대초 표훈사, 징양사 일부 복원 ② 1987년 8월 北韓 고고학자들이 高句麗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큰 절터를 발굴(팔각탑지등) ③ 1988년 5월 금강산의 4개 寺刹가운데 하나인 신계사에 대한 발굴과 整理作業등이 있다. 1988년 6월 묘향산 보현사의 破壞된 建物 대다수를 복구하고 팔만대장경 원본과 해제본을 保管할 保存庫를 建立하였으며, 경내의 大雄殿과 만세루, 관음전 그리고 사각구층탑과 팔각 3층식탑을 補修(東亞日報 1988.5.3)하였다. 또 7年間に 걸쳐 高麗朝의 팔만대장경 전체를 국역(總 25 卷)하였다.

아) 佛教言語

北韓에서 一般人과 佛教關聯者에게 흔히 쓰여지는 佛教用語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다. 부처, 승려(중), 지옥(저승), 나무아비타불, 참회, 기도, 법당, 절, 탑, 대승불교, 대사, 선사, 법회, 문수거리(街) 등이다.

자) 묘향산 보현사의 모습

보현사는 968年(高麗 光宗 19年)에 탐굴·공화 두 대사가 이룩한 절로서 정사가 무려 243간이나 되었다고 하며, 朝鮮時代 구국승정을 일으킨 서산대사의 입적처로 有名하다. 8.15直後 記錄에 의하면 建物は 백여채, 승려 160餘名, 신도 5,600여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戰爭期間中에 爆擊으로 거의 破壞되어 6, 7채 정도만 남아있다가 70年代 後半에 복구를 시작하여(1976年 大雄殿, 1979年 만세루와 팔각13층탑을 복구하였고, 大雄殿의 木造部分은 금단청을 입혔다.) 88년 현재 거의 복구가 完了된 狀態라고 한다.

爆擊으로 거의 破壞된 寺刹이 지금은 전체가 원형대로 잘 補修되어 있고 여기저기 砲彈맞은 흔적이 남아있는 큰비석과 석탑, 대중, 복등이 장엄되어있다. 또 50여채 이상 完璧하게 복구된 寺刹建物は 깨끗하며 保存이 잘 되어있고, 褪色한 색깔을 대신하여 새롭게 단청을 입히고 기둥에는 朱紅을 칠하였다. 새로운 保存庫에는 고려팔만대장경의 원본과 해제본이 저장되어 있다. 法堂內部엔 佛像, 탕화 등이 장엄되어 있고, 촛불과 향이 信仰儀式에 使用되고 있다. 法堂문은 모두 열려 있으며, 두분의 스님이외에 寺刹案内人이 따로 常住하고 있어 國內外의 觀光客을 案内하고 있다. 또 평일에는 절에 신도들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이외에도 보현사는 佛教의 대가람이자 民族文化遺產의 寶庫로서 佛教信者들의 성지순례장소가 되고 있기도 하며, 觀光名所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또 88년 5월엔 “불교성탄일 2532주년 記念法會”가 신도들과 朝鮮

佛敎徒聯盟 中央委員會 敎職者가 參席한 가운데 열렸고, 대동 대선사가 說法하고 청운선사(보현사 주지) 주관으로 座談會를 가졌다고 한다.

차) 그 외의 寺刹의 모습

대부분의 寺刹이 美軍의 爆擊으로 부서졌으나 戰後 복구와 社會主義 建設時期에 寺刹의 복구 및 補修作業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수 없었던듯 싶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寺刹은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거나 근근히 維持해 나가는 정도였던것 같다. 그러나 70年代 以後 佛敎 寺刹에 대한 발굴과 복구가 持續的으로 이루어져 보현사 이외에도 개성의 계곡사, 관음사, 금강산의 정양사, 표훈사, 신계사, 보덕암 그리고 성불사와 석왕사 등이 完全復舊, 또는 部分復舊되었다. 이 이외에도 北韓이 단편적으로 紹介하고 있는 寺刹은 이십여군데가 알려지고 있다.

카) 佛敎團體

現在 北韓의 佛敎團體로 알려진 것은 朝鮮佛敎徒聯盟(1945.12.26 結成된 北朝鮮佛敎徒聯盟을 母體로 1955년에 결성, 委員長: 박태호, 副委員長: 홍화두) 뿐이며 구체적인 組織構成이나 活動狀況은 알 수 없다. 단지 北韓의 佛敎信者가 10,000명이라고 한 사실을 볼때 聯盟員의 構成員이 이쯤 되지않나 推定된다.

北韓 佛敎團體의 活動은 45年~50年사이, 75年以後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45年 12월에 北朝鮮佛敎總聯盟이 最初로 組織된 以後로 여러 團體가 結成되었으며 이들은 南北協商과 民族統一運動에 參與하였다. 또 6.25 戰爭中엔 佛敎信仰協會, 佛敎青年會, 女性佛敎徒會가 聯合會議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人民軍으로 參與했다고 한다. 그 이후 別반 活動을 보이지 않다가 社會主義建設이 進展되고 指導的 理念으로 主體思想이 確立

되어가면서 宗教活動에 대한 許容과 支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 예를 볼것 같으면 社會主義憲法을 採擇한 以後 73年, 74年에 걸쳐 南韓 政府의 民主人士 및 宗教人 彈壓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이후 각종 성명과 제의를 해오고 있으며, 85年경 確認된 바에 의하면 聯盟의 “後繼者 教育을 위한 講習會”를 실시, 개성시내에서만 50여명이 이에 參與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佛敎團體의 活動이 政治的 目的 遂行을 위해 存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宗教活動을 하고 있느냐, 또 勞動 黨員으로 構成된 上部組織만 있고 下部組織이나(地方組織) 民間人의 參與는 없는 유명무실한 團體인가의 여부는 아직 正確한 判斷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80年代以後 聯盟의 活動은 더욱 活潑해지고 있으며, 그 範圍도 國內 뿐만 아니라 海外佛敎人士들과의 關係改善이나 國際的 모임에의 頻繁한 參與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81年 東南亞에 佛敎代表團 派遣, 82年 몽고에서 열린 第6次 佛敎徒平和會議에 參席하였다. 87年末경에는 北韓의 佛敎 團體의 代表가 蘇聯 佛敎關係人士와 接觸을 가진 바 있다.

80年代 들어 聯盟의 活動이 活潑하게 展開되는 데는 民族宗教로서의 佛敎의 社會·歷史的으로 潛在된 力量들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國際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화해무드와 平和共存의 분위기와도 密接한 關聯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방과 平和共存을 추구하는 蘇聯과 中國을 위시한 各國과 多방면의 交流와 接觸이 活潑해지면서 불교단체의 獨自的 活動도 일정하게 증대된 것이다.

위에 들어 본 北韓쪽측 資料가 어느 정도 正確한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問題이고 여러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여기서 실제로 북쪽을 視察한

사람이 겪은 佛敎事情의 한 번을 살펴 보기로 한다.

조명훈의 《북녘일기》(1988. 산하)에서 보현사에서 예불을 하던 스님은 진짜 스님이 아니라고 힘껏 視察한 사람이 조명훈에게 귀띔해준 말이 나온다(p.129). 이 말을 어느 정도 신임해야 할지 모르지만, 북쪽의 寺刹에서 신도를 맞이하며 禮佛하는 스님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북쪽에 「朝鮮佛敎徒聯盟」등 官製團體는 있다. 그리고 國際會議에도 불교대표 이름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 實體를 잘 모른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쪽측의 社會組織은 社會結社가 自由市民社會처럼 자주적인 사회결사가 아니다. 結社自體가 國家統制의 官製團體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 사회의 本質的 特性을 지나쳐 버리고 거기에도 佛敎團體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우리의 단체와 同質視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쪽측과 宗教的인 면에서 接觸·交流를 하려고 하고 또 해야 한다. 官製團體라고 해도 일단 부딪치 볼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접촉의 장구는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官製團體 이외에 북쪽측 사람들 個個人의 信仰이 問題가 된다. 비록 官製團體를 통한 접촉이라고 할지라도 북쪽 同胞들과 接觸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그러한 접촉을 통한 相互理解는 무엇인가 서로가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3) 韓國 佛敎界의 統一論議·運動의 論理와 方向

韓國 佛敎界는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겨레의 삶의 터전인 韓半島의 분단이 우리 민족의 生存에 질곡이 되고 온갖 社會·政治·經濟的 모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韓國 佛敎가 중생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하여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問題意識에서 統一問題에 接近하고 있다. 宗教運動으로서 불교계의 統一運動은 文化運動 및 社會運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政治的인 接近과는 다르다. 무엇보다 韓國 佛敎가 초점을 두는 것은 우리 民族의 共同體로서의 生存이 分斷下에서는 自然스럽게 되어 갈수 없고 分斷으로 말미암은 불신과 증오, 원한과 통한 등은 6.25 戰爭을 겪은지 3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아물지 않고 있다. 흔히 말하는 「離散家族」이라고 하는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는 부모, 형제, 자매 사이의 갈라짐과 못만남은 統一이 되기 전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다. 그리고 우리의 社會, 經濟, 文化는 오랜 歷史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分斷은 우리 生存自體를 잔인하게 이끌어 쓰리고 歪曲시키고 있다. 반세기에 이르는 分斷의 固着化는 分斷狀況을 既定事實化하며 그에 따라 민족의 절름발이 生存을 그대로 원래것인 양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잘못된 生存良識에 불감증이 되게 해오고 있다.

여기서 韓國 佛敎는 民族宗教의 하나로서 民族同胞사이의 不信과 憎惡, 恨에 사로잡힌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精神的 분위기의 조성을 佛敎의 관점에서 조성하여야 한다. 「아힘사」(不殺生・慈悲)의 마음을 일깨우고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며 本來의 바른 마음으로 돌아가며 “우리는 兄弟”라고 하는 眞實을 밝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겨레의 삶의 양식인 文化를 통한 同質性을 回復하기 위해 信仰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면서 民族共同의 遺産을 이어가고 가꾸어갈 공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 각종의 對策을 講究, 實踐해 나가야 한다.

흔히 宗教運動은 그것이 消極的이고, 약하고, 具體的인 성과를 즉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가볍게 評價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는 事例로서 몇 가지 들어본다. 인도의 간디는 印度民衆의 自尊心과 矜持를 宗教的 眞理를 통치서 일깨워 주므로써 大英帝國으로부터 獨立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인도가 獨立될 당시에 인도 社會의 가장 모순된 불가족 천민의 제도를 어느 정도나마 해소하는 실마리를 풀고 그것을 인도 憲法에까지 反映시킨 것은 불가족 천민출신의 法務長官인 암베르칼의 新佛敎運動이다.

韓國社會가 多宗教社會로서 각 종교·종파가 共存하기 때문에 佛敎가 일색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民族文化에 뿌리를 박은 民族宗教의 運動의 일환으로서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多宗教社會의 종교·종파 사이의 葛藤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도 事實이기 때문에 韓國佛敎는 佛敎안의 각 종파는 물론 다른 宗教와의 對話·交流·協調를 통해서 民族問題로서의 統一問題에 보다 심도있게 參與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政府는 「7.7 宣言」以後 各界人士들의 南北間 交流를 推進하고자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佛敎는 어떻게 參與하여야 하는 것을 보다 具體的으로 摸索·整理하여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3. 南北交流와 韓國 佛教界의 統一運動의 座標

(1) 佛教 各 宗團의 協議機構 構成

韓國 佛教界가 各 宗團·宗派나 團體別로 各양한 統一論議·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이는 目標가 하나로 歸一되고 各 宗團의 自主的·自律的 움직임 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自然스럽다. 이를 劃一的으로 위로부터 統制하려는 發想은 있어서도 안되고 通할수도 없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宗團·宗派組織이나 個人의 運動을 하나의 協議機構에서 相互 情報를 交流하며 意見을 交換하고 共同의 一致된 目標를 세워가며 協助를 하는 것은 必要하다.

各 宗團·宗派團體 및 個人이 協議體를 통해서 제기된 問題들을 놓고 調整하고 協議하며 協助해 나가는 것은 必要하다. 人士의 派遣을 위한 選定이나 그에 따른 諸般問題를 協議하며 對應해 나가는 것은 아주 自然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協議機構에는 各界 有關部門의 專門家로 構成되는 諮問機構가 있어서 問題되는 狀況을 日常 研究·調査하고 協議機構가 要請하는 問題들에 對해 專門的인 識見을 參考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團體·聖職者·信徒等 人士交流의 推進

이미 「7·7 宣言」에서 북쪽측과 各界 人士의 交流를 提示했다. 이에 따라 佛教界에서 佛教宗團이나 團體, 僧侶 및 信徒가 北쪽 측과 交流를 하도록 摸索하게 될 것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서 무엇을 주된 案件으로 누가 어떠한 方式과 節次에 따라서 接觸·交流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構想하여야 한다. 이미 북쪽측의 알려진 佛教團體나 그 任員

에 대해 調査·整理는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북쪽측의 各種 國際佛敎會議 또는 宗敎會議에서 活動한 狀況에 대한 것도 좀더 깊이 알아두는 것이 參考가 될것이다.

(3) 南北 佛敎徒 共同法會

이미 基督教에서는 外國에서나마 南北의 當事者가 一部 만나서 共同으로 예배를 보고 統一問題에 對한 聲明도 發表해서 注目을 끌고 있다. 新聞에서 「南北韓 基督者 글리온 선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88年 11月에 나왔다. 統一院이 이미 調査한 資料를 보아도 統一問題에의 接近에는 調査받은자 73%가 信賴回復·緊張緩和가 先決問題라고 하고 있다. (統一院 「統一意識」어른 調査, 한겨레新聞, 88.11.30, 3面).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佛敎界에서도 適當한 時期에 어떤 場所에서 南北 兩側의 僧侶 및 信徒가 參與하는 共同法會를 가지는 것은 일단 積極的으로 시도해 봄직하다.

(4) 北쪽측의 信徒에게 佛敎聖展 보내기 運動

한글로 된 佛敎聖典이나 佛書를 북쪽의 敎友들에게 보내는 運動을 북쪽측과 協議하여 展開할 수 있다. 물론 우리도 북쪽으로 부터 그러한 文獻資料를 提供 받을수 있다고 본다. 서로가 주고 받는 가운데서 信仰이란 끈을 통해 서로가 理解를 더욱 深化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5) 南北 佛敎聖地 巡禮

南과 北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나 우리 佛敎界 高僧들이 修練하신 곳을 信徒들이 서로 巡禮하는 것은 서로의 自然스러운 接觸에 이바지 할 것이다. 당장 實現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수도 있지만 미리 計劃하고 北쪽측에 타진할

수 있다.

(6) 南北間 佛敎研究物 交換과 세미나 開催 및 佛敎遺蹟 調査를 위한
共同學術活動

佛敎遺蹟이 民族文化遺蹟으로 保存되어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民族文化의 근간이 되고 있으므로 南北이 각기 文化遺蹟에 대한 研究는 각기 進行되어 오고 있다. 이를 이미 研究된 成果와 업적들은 相互 交換하며 나아가서 佛敎關係의 세미나 등 研究모임에 學者들이 參與하고. 佛敎遺蹟 調査나 그 밖에 佛敎關係의 學術活動에서 南北學者들이 協助할수 있을 것이다. 지금 北쪽의 文獻이 이미 發刊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政治的으로 過敏하지 아니한 宗教關係에 대한 學術交流는 좀 더 容易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물론 北쪽측의 宗教政策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制約이 있다고 하는 점도 豫想하여야 하겠으나 일단 시도해 볼 일이라고 본다.

(7) 民間主導 統一運動과 政府主導 統一運動의 相關關係

이제까지 統一問題는 政府가 주도해 왔다. 「7.4 南北共同聲明」(1972)만 해도 國會와도 相議가 없었고 各政黨 간부들과도 協議가 없이 政府 一部 高位層의 決斷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政策이 通할수도 없거니와 通해서도 안된다. 明分上으로 보아도 온 民族的 課題를 政府가 一方的으로 決定하고 國民은 그에 따르라고 하는 식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政府가 해야 하는 역할이 감소된 것은 아니다. 民間次元에서 하는 것과 政府次元에서 하는 것이 併存되고 그것이 어느 선에 가서는 하나가 되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政府次元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도 물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民間次元의 統一運動에 政府가 提供

할 수 있는 資料나 그밖에 便宜는 積極的으로 보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근간에 北쪽측에 대한 情報은 거의 政府가 獨占的으로 管理해 왔기 때문에 民間人이나 民間團體로서는 여러모로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政府가 管理하는 정보는 政府가 國民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窮極的으로는 그것이 國民의 共同資產이라고 하는 認識을 갖고 統一問題에 대해서는 특히 正確한 情報나 資料를 提供해야 한다고 본다. 그밖에 政府로서 適法하고 適切하게 支援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이다.

한편 민간차원의 統一運動은 各 部門에서 多發的으로 展開되어 오고 있다.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민간차원의 統一運動은 在野團體와 學生運動 및 一部 宗教界가 이미 뚜렷하게 부상하고 있다. 在野政黨이나 既成 社會團體 등은 그러한 민간차원의 統一運動에서 主導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어떻게 狀況이 變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民間次元에서의 接觸・交流의 現實的으로 可能한 것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民間次元의 統一運動도 南과 北의 對應方式은 서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社會構造上的 體質로 보아서 南쪽의 對應과 北쪽의 對應은 서로가 크게 差異가 있을 것을 豫想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勘案하여 먼저 接礎・交流의 바탕을 잡는 것이고 北쪽측에 대한 것을 알고 깊이 分析하여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重要하다.

여기서는 佛敎界의 南北交流를 통한 統一運動에 대해서 論及한다.

- ① 佛敎의 協議機構와 다른 宗教와의 協助 : 이점은 宗教運動으로서 平和運進과도 關聯하여 積極的으로 推進되어야 하고 既存의 組織體와 그 運動成果의 肯定的 수렴을 바탕으로 한다.

- ② 政府次元의 協助：이 점은 이미 論及했으므로 省略한다.
- ③ 政府·民間 佛教界 合同으로 統一問題 세미나의 開催：그간에 이루어진 성과나 問題點의 제기들을 綜合, 整理하는 觀點에서 假稱 「慈悲와 平和를 바탕으로 한 民族共同體의 同質性回復을 위한 세미나」를 開催하여 佛教界와 佛教學界等 有關團體 및 人士들의 共同모임을 開催하여 問題點을 整理하고 그에 따른 政策方向을 摸索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④ 위 成果에 바탕을 둔 汎佛教機構의 協議機構의 즉시 構成과 佛教各 宗團·宗派 및 團體나 人士들의 統一問題對策會議：下向式 單線機構를 構想하거나 政府附屬機構의 對策機關을 마련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원대한 目標을 設定하되 當面의 問題에 應하면서 統一問題를 佛教界가 자주적으로 推進해 나가야 한다.

結 論

— 바람직한 統一運動으로서 佛敎界 統一運動을 위하여 —

政治的·軍事的 및 經濟的인 面에서의 統一運動과 달리 宗敎界的 統一運動은 當장의 이해갈등을 크게 불러 일으키지 않고 展開될 수 있는 면도 있다. 宗敎團體나 宗敎인이 같은 信仰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對話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경색된 霧圍氣를 조금씩이나마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佛敎界的 統一運動의 役割이 第1次的으로 期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점을 分明히 하고서 民間次元의 南北 宗敎界 = 佛敎界의 接觸을 시도하는 것이 必要하다. 무엇보다 南과 北의 社會構造上的 差異와 體質의 相異點을 알아야 한다.

① 自主的 社會結社로서 宗敎團體의 問題

北쪽측은 政黨·社會團體가 우리처럼 있으나 우리와 다른 것은 그러한 團體가 準國家機關 또는 官製性을 띤 團體라고 하는 것이다.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카톨릭의 歷史的 基盤이 굳건한 社會主義나라들에서는 교회등 宗敎團體가 自主的 結社라고 하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으나 北쪽 事情은 다르다. 우리가 一部 알고 있는 北쪽의 社會團體로서 少年團, 社會主義 勞動青年團, 農民同盟, 各種 聯盟 등은 하나의 國家機關이다. 우리 社會처럼 밑으로부터 만들어지고 各 團體가 複數로 多樣하게 併存하여 活動하는 것이 아니다. 宗敎團體도 크게 例外는 아니다. 따라서 이 점을

미리 알고 그 組織의 活動을 把握하여 實體를 알고서 接觸을 하는 것이 正常的인 對應이라고 본다.

② 宗教에 대한 國家政策의 差異

북쪽등 社會主義나라에서도 憲法은 信仰의 自由를 정하고 있으나, 社會主義나라의 宗教에 대한 基本政策은 親宗教的인 것은 當初부터 아니었다. 反宗教政策이 지금은 상당히 緩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國家의 基本施策이 根本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社會主義나라들에서 宗教에 대해 傍觀的·放任的인 政策을 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나라에 따라 다르겠으나, 북쪽측으로서는 오히려 各 宗教團體에 대해 能動的으로 活用하는 쪽으로도 나오고 있다.

③ 宗教人(聖職者)의 身分과 敎理解釋의 特性

위의 事情과도 關聯하여서 北쪽의 宗教聖職者의 地位가 어떠한가에 대한 면밀한 分析과 檢討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직까지 알기에는 北쪽에서 宗教聖職者를 양성하는 宗團·敎團의 教育機關이 나라의 教育機關과 別途로 運用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점은 東獨같은 西歐 社會主義나라와도 다른 점이다. 나아가서 일찍부터 社會主義理論家들은 高等宗教에 대한 解釋에 있어서 觀點을 달리해 왔다. 獨逸의 칼 카우츠키는 그의 著書 「基督敎의 起元」에서 예수가 가난한 者의 편에 서는 革命的 先覺者로 解釋을 하고 있다. 初期 예수의 基督敎 運動을 革命的 社會運動의 일환으로서 把握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聖書 解釋도 달라지게 된다. 佛敎의 석가모니도 古代 印度 農業社會에서 바라문지배의 階級的 矛盾에 대한 異意提起로 解釋할 수도 있다. 聖典 解

釋은 解釋者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리 해석이 深化된다고 하겠으나, 資本主義社會의 宗教界에서의 解釋學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歷史와 社會에 대한 解釋의 틀이 根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고서 對話에 임하는 것이 相互理解의 진지한 接近을 위해서도 必要할 것이다.

④ 開放化에 따른 宗教政策으로서 다른 社會主義 나라 類型의 參照의 必要性

죽의 장막이라고 하던 中國의 문호를 부분별로 開放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宗教에 대해서도 밖으로 부터의 接觸을 認定하고 있다. 원래 中國의 共產主義者들은 西方에서 中國으로 들어 온 宗教(基督敎)를 西方帝國主義와 불가분의 일부로서 把握했다. 事實 그러한 면도 있었다. 中國이 革命을 치부고 建國을 하는 過程에서 土着 民間信仰도 迷信의 범주로 규정하였고 西方 基督敎는 帝國主義의 앞잡이로 단죄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反對的인 閉鎖政策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한 事例에 대해서 檢討하면 우리에게도 參考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宗教界 = 佛敎界의 統一論議・運動은 그 性格上 民間次元의 運動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國敎가 없으며 政敎分離를 原則으로 하는 宗教政策을 施行하고 있다. 따라서 佛敎界의 統一運動은 佛敎界가 自主적으로 펴나갈 수 밖에 없다. 다만 政府次元에서 窓口의 開設이나 그 밖의 便宜를 提供받을 수 있다. 佛敎界가 自主적으로 南과 北의 벽을 허물고 佛敎라고 하는 架橋를 통해서 相互接觸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文化的 同質性을 確認하고 理解를 도우며 말길을 터 간다고 하는

것이 課題이다. 여기서 어느 쪽도 자기의 것을 우월시 하거나 強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宗教上의 教理 論爭場이나 자기 宣傳을 위한 말다툼으로 시종하게 될 危險이 있다. 끈기있게 接觸을 통해 相互信賴를 회복하려고 努力하며 그러한 過程에서 얼어붙은 응어리가 하나씩 녹게 될 것이다.